

윤석열 대통령, K-수출 드라이브 건다

사투를 벌이는 수출 시장, 윤 대통령 국민 먹고 사는 문제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2/23일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수출 플러스'(0.2%↑)를 달성하여 6,850억 불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범부처 수출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①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산업부), ②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확대 전략(농식품부·해수부), ③K-콘텐츠 수출 전략(문화부)이 각각 보고됐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하나미아르, 동원산업, HMM, CJ ENM 등 민간 기업인들과 분야별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늘 각 부처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정부 역량 '수출 플러스' 지원에 집중

첫째,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4.5% 감소 전망)이던 수출 플러스와 6,850억 불(0.2%↑) 수출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범정부 수출지원 사업에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5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수출 확대를 위해 결집하겠다.

둘째, 각 부처에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소관 분야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수출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의 고충도 빠르게 해결하겠다.

셋째,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 新품목의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겠다. 원전·방산 등 '수주전략산업'은 정상 경제외교, 국가별 맞춤 패키지형 수주전략 수립 등을 통해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농수산물·디지털산업 등 '수출유망산업'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② 식품에도 K-프리미엄 시대 만든다

첫째, K-Food 수출을 '22년 120억 불에서 '27년 200억 불로 확대하여, 국내 식품산업에서 K-Food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9.5%에서 13%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 K-컬처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간편식 개발과 같은 제품 다양화를 추진한다.

둘째, 농수산물 전후방산업 수출을 '22년 30억 불에서 '27년 80억 불로 대폭 확대하겠다. 올해 중동·호주에



현지 맞춤형 스마트팜 온실을 설치하고, '26년까지 국내에 스마트양식장 6개소를 설치하여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자율주행 농기계 실증단지('23~'26) 및 어선 건조 진흥 단지('27)도 조성하겠다.

셋째, 수출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굳건한 해운 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우선, 신조선 발주와 선사 M&A 등을 통해 '27년까지 국적선사 화물수송 능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대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부산항(국내 최후)과 '29년 진해신항에 초자동 스마트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③ K-콘텐츠, 제조업 이어 메인 수출 산업으로

첫째, 내년 정책금융 1조 원 조성하고 콘텐츠 해외거점 확충을 통해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 ▲K-콘텐츠 펀드, ▲완성 보증, ▲이자 지원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고질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올해 콘텐츠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

하는 등 'K-콘텐츠 수출 전진 기지'를 구축해 나가겠다.

둘째, 중동·북미·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하겠다. 지난 UAE 순방 당시 맺은 MOU 등을 바탕으로 중동에 신규 바이어를 확보하고, 각 지역(국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유력 콘텐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에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시키겠다. 농수산물 분야는 K-콘서트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뷰티 분야는 중소 화장품 기업의 신흥국 판로 개척에 앞장서며, 패션은 한류 콘텐츠를 통한 제품 노출 효과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각 부처가 보고한 수출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당당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비용 지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국내 물기업의 인검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물기업의 국내·외 인검증 취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 중 기술이나 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으로, 국내·외 151종의 인증서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국내인증(NET, NEP 등 10종)은 300만원, 해외인증(EPA, CE 등 141종)은 700만원 한도이며, 지원 항목은 인검증 취득에 들어간 신청비,

심사비, 시험비, 인증수수료 등이다. 총 10개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gwisc.or.kr) 내 기업참여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진흥원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물기업들이 원활하게 국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검증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산업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로 지속적인 성장기 기대 불루필드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조혜영/기자

전남도, 탄소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국비 3억 확보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탄소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 및 업종, 기업 지원을 통해 2050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은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석유, 화학, 철강,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이 국내 배출량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공정 전환이 필요한 시

점이다.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공정 전환 전략 마련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근로자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미순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주력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전남이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주력산업 탄소 다배출 중소기업 공정 전환을 지원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경북도, 2024년도 신규사업 추가 발굴 더 합시다! 행정부지사 강력 지시

경북도는 23일 도청 원용실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설정한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발굴한 주요 건의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순기에 따른 단계별·사업별·실국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9514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위축, 정부의 건전재

정기조 유지 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올해에도 실국별 국비건의사업 11조 6천억원을 시작으로 정부 예산 편성시까지 추가 신규건의사업 지속 발굴과 공모사업 응모 등으로 국비 확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실국별 건의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전략사업별 각 부처 진행상황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응논리를 점검하고, 부처·국회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등 2024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또 경북도는 현재 논의된 건의사

업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별 중점과제와 투자방향을 분석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및 다양한 분야의 예타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회의를 적극 활용해 부처간, 지역 국회의원 간 다양한 공조전략을 펼쳐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은 4월말까지 소관부처로 신

청하고 5월말까지 부처 심사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것 보여,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한 톨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발굴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 상 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부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 4차산업 신기술 체험 통해, 미래 부산을 그린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2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G ThinQ Home'과 '경기자율주행센터'를 견학하고 최첨단 4차산업 신기술을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대표인 임말숙(해운대구2)의원과의 부회장 이승연(수영구2)의원 이외에 부산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부산도시공사 사내 학습모임인 '스마트북(book)모닝'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이후 부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임말숙 의원은 "우리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최근 부산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구현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존 공동주택 및 건물의 스마트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바, 이번 견학을 통한 ThinQ Home 신기술의 체험은 이후 이를 접목하여



부산시를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로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향후 국제적 스마트시티로 변모해 나갈 미래 부산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덧붙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미래 혁신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분석 및 맞춤형 구현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1일(화)에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4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송종진/기자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구)는 2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종철)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위원회의 우호 협력 간담회는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경북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전통적 기능에 더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활동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양 도의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

은 "집행부 간 협력을 넘어 지역발전과 경북·경남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양 의회 간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상생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 의회 운영위원회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취약계층 일자리 기관 현장 방문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2월 22일 취약계층 일자리 기관 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김선옥 위원장과 김수연 부위원장을 비롯해 윤석경 위원, 박소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정왕동에 소재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와 시흥시장에인보호작업장 등 취약계층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상담 지원, 창업일자리 지원, 교육, 자활지원, CMS 후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왕역 인근의 라라워시(다회용기 세척사업) 사업장을 찾아가 운영상 어려운 점을 살펴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했다.



이러 시흥시장에인보호작업장에서 유동준 원장으로부터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작업장 곳곳을 둘러보며 직업재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와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생산 환경을 제공해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시흥시장에인보호작업장은 다양한 직업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기능을 회복·증진시켜 일반고용 전이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작업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3일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고자 모금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에 전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15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지진 참사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김기정 의장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정 의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천600만원)를 전달했다.

조혜영/기자

이상욱 서울시의원, 탄소중립목표 실천에 서울시 앞장서야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세운 바 있다. 이상욱 의원은 전기버스 납품업체인 에디슨모터스의 법정관리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수송 부문 중대중교통 버스 적자를 벗어나 무공해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세수 마련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중국 기업에서 지분 전량을 사서 한국계 회사로 탈바꿈해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전기버스 납품을 시작했다. 5대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111대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터리, 모터, 중국산 버스 반조립 논란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고 납품 대수도 증가시키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에디슨모터스 차량 도입 과정 및 품질에 대해 제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유지·보수에 있어 부품 조달,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그는 "서울시의 수소버스 공급 계획은 충전소 구축, 차량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도입속도가 더딘데,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서울시가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수단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의 수소버스 공급 계획은 충전소 구축, 차량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도입속도가 더딘데, 예산 등의 문제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서울시가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수단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대비책을 갖기 위해선 세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자분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버스 광고 단가 조정 △광고 방식의 다양화

△IoT기술 버스 인프라 탑재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와 함께 노후화된 공중전화부스, 택시승강장 등의 활용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공중전화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공중전화부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의무 시설이다. 택시는 여객 사용의 증가로 택시승강장 역시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는 "방치되고 있는 의무 시설, 보도 점유 시설물들 전수 조사를 통해, 필수시설에 기술을 접목해 자치구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행정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구례군의의회, 영등포구의의회와 친선결연 우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구례군의의회는 2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의회(의장 정선희)와 친선결연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의회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의증진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및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상호교류·협력, 기관 방문, 공동 의정 간담회 및 연수 등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영등포구의의회 정선희 의장은 환영사에서 "구례군의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상호 지역간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발하게 교류하여 긴밀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례군의의회 유시문 의장은 "상생은 무한경쟁 시대에 필수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농촌과 도시가 생활환경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다면 성장은 멈추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구례군의의회와 영등포구의의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손을 맞잡아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성공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날 2월 22일에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구례학사를



방문하여 기숙 학생들을 격려하고, 구례홍보관 설치 대상지를 시찰했다.

이번 구례학사 방문 간담회에는 재경구례군 향우회 김광태 회장과 재단법인 구례장학회 박형문 이사장, 유승배 이사, 신영환 이사, 이영수 이사, 박종학 사무국장이 참석했

으며, 영등포구의의회에서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구례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행사 참석, 구례군 홍보관 설치, 구례군 농·특산물 장터 운영 등 구례학사와 재경구례군향우회의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희진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석경 | 청소년책임보도사: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회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경 제 부: 내선 (114)	오 계 사 인 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평택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 최우선 확보... 맞춤형 관리 추진

'23년 보호구역 4대 핵심분야 선정 연간 485억원 투입...보행공간 확보 우선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17~'2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시간)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유형)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한다. (도로교통공단)

지난 10년('11~'2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바 있다.('22년, 서울연구원)

지난 5년('16~'20년)간 노인 보행사고 중 55%가 활동량이 높은 주간 시간대(10~18시)에 발생했으며,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

통공단)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②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③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④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로 연간 약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첫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필요 시 보행자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둘째,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

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기존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 설치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270개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를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170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을 강화한다.

신호기 신설 및 교체 80개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또한, 사고위험이 잦은 곳은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및 주변 안전시설 정비 240개소 :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200개소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 등을 위해 횡단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셋째,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



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과속단속카메라 연내 200대 추가, 총 1,503대 설치 : 사고위험이 있거나 지역주민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200대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 주변 진입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 설치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

터 부과한다. 동시에,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250개교 545명 :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동행하고,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학교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어린이 승차차구역 지점 100개소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 지정한 어린이승차차구역에서만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장거리 통학, 장애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가 대상 시설과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승차차할 수 있는 '어린이승차차 구역'을 연내 100개소 구축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또한,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 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유아부터 어르신까지...생활체육으로 건강·여가 두 마리 토끼 잡다

영등포구가 2023년 상반기 생활체육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함양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연령과 성별에 맞춘 9개 종목, 총 26개 생활체육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게이트볼, 파크골프, 요가, 댄스 스포츠, 라인댄스, 아침체조는 구민 대상 ▲풋살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축구는 유아·어린이·여성 대상 ▲당기요트는 중·고등학생 대상이다.

수업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수업별 20명 ~ 30명 내외이다. 생활체육 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내 교육강좌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생활체육 교실마다 모집 기한과 수업료가 다르다. 축구 및 풋살은 2월 21일부터 선착순 모집이다. ▲게이트볼, 파크골프는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요가, 댄스 스포츠, 라인댄스, 당기요트는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모집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한다. 또한 아침체조는 현장 모집이다.

덧붙여 구는 작년 생활체육 교실 운영 결과 인기가 높았던 당기요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당기요트



는 한강에서 바람을 타고 요트를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도 확대하고 보조강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도 즐기기를 바란다"라며 "구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연령별 특색 있는 생활체육 교실을 개설하여 건강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금천구,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만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교육비·상담비 등 지원

금천구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이 지난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으며, 지원

규모도 26,000만 원에서 40,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서비스는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원(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 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용돈교정, 교복 지원) 등 총 8개 분야이며, 이 중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1개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 원에서 월 65만 원 이내로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

하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학교 등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특별 지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더 새롭게,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소상공인 점포에 새 옷을!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시작!

관악구가 소상공인 점포개선을 지원하는 '2023년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다.

'아트테리어'는 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이 협업해 가게 내·외부의 공간개선부터 상품 브랜딩까지 소상공인 점포를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경험 제공은 물론 가게별 특색을 살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구는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265개소 점포 지원, 지역 예술가 407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90%에 달할 만큼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점포의 일반 환경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 지역 예술가 매칭 없이도 참여가 가능한 "비매칭 유형"을 신설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디자인 개선 없이 기능적 환경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디자인 개선에 적극적인 소상공인은 지역예술가와 매칭해 상생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해 지역 예술가와 현장 작업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간판, 천막 등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준'을 마련해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가게 내·외부 디자인과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관내 소상공인 매장형 점포 약 300여 개소이며,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단 유류주점, 프랜차이즈 및 체인, 동일·유사사업 참여 점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듣는다!

송파구가 건축물의 올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사용승인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

용 건축물이다.

구는 송파구청 누리집 및 이맥스(서울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공개한다.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전년도 시가표준액 또는 시정거래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비교해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구체적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서울시, 행안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의견변영 여부를 우편으로 회신하며 최종 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구 세입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공정하게 결정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할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 10년 동안 노련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제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푹푹 멍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

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용인·고양·창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4개 특례시장의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재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



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는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행·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제시했다. 조혜영/기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시 승격 50주년 기념 행사로 추진

부천시는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을 알리고 기념하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2일 BIFAN 사무국 10개 광역동 마을자치과장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의 대표 축제인 BIFAN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10개 동의 협력을 요청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BIFAN 소관부서인 부천시 관광진흥과의 이점숙 과장은 “오늘 간담회와 추후 등에서 전해주는 주민 의견을 영화제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오늘 간담회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BIFAN 사무국장의 영화제 소개 ▲BIFAN 시민참여 행사 참가동의 시민참여 행사 소개 ▲10개 동 마을자치과장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참여행사 총감독은 “올해 BIFAN을 주민이 사랑하고 부천이 자랑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힙’하고 ‘핫’한 파라다이스라는 모토를 내걸고 시민들과 함께 시 승격 50주년을 대대적으로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연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역동 마을자치과장들은 BIFAN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이 영화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연중행사와 홍보를 하면 한다”며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오늘 간담회와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용민/기자

광명소방서, ‘소하동 판자촌’ 화재예방 우리가 한다

광명소방서(서장 박병재)는 23일 화재취약 주거지역 소하동 판자촌(독방길 79)을 대상으로 소방차량 12대와 소방력 30여명을 동원해 화재예방을 위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소하동 판자촌의 경우 목조 슬레이트가 단층구조로 폭방 110여 채가 복잡한 구조로 밀집되어 있어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대상으로 지난달 20일에는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름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눈감쩍힐새 주택 60여채를 태우며 이재민 44가구를 발생시킨 바 있다.

21일 소방서에서 열린 도의원 정담회시 유충상 의원은 “소하동 판자촌은 건물특성상 다량의 화재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어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대응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광명소방서에서는 지난 20년 11

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소화기 42, 경보기 57) △보이는 소화기함(3.3kg 분말소화기 6대 적재) △주요민이 초기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정기적으로 관서장의 현장 안전컨설팅을 통해 보급된 소방시설 및 소방활동 대응여건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번 훈련에 앞선 22일 시청, 가스, 전기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노후전선 및 계량기 점검 △가스 설비 및 누설점검 △전기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콘센트 패치형 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집중 안전관리를 펼쳤다.

박병재 서장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대비로 소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평택시,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방역물품 지원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 이후,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해열제(또는 감기약)와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해열제와 감기약은 현장에서 해열제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로 제공급된 의약품으로 소아용 10,470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원스톱 진료기관 등 456개소에 감기 증상이 있는 소아 및 확진자를 위해 배부되고, 성인용 2,970개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원 등 취약 시설 113개소 및 보건소 65세 이상 선별검사자 등 고위험군에게 배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

염 취약 시설 123개소에는 보건소에서 보유중인 마스크 46,000개, 신속 항원키트 12,500개, 소독제 2,600개 등 방역물품과 보건소에서 제작한 ‘간병인력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책자, 시설 환경 소독과 이용수칙 포스터를 추가 배부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택보건소장은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주 1회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며, 종사자 대상 온라인 감염관리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물품 지원은 감염확산 방지와 기관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감염 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전통시장을 핫플로" 이현재 하남시장, 기업인협의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이천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

이천시는 고연령층의 높은 사망률인 중 폐렴 특히,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가 잠정 중단된 상태로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여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올해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 접종을 한번도 맞지 않은 어르신으로, 평생 한 번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균혈증,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위탁의료기관(민간 병·의원) 뿐 아니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있어 편한 시간대에 방문하여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가능한 위탁 의료기관은 보건소 전화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하며, 백신 보유 여부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당일 바로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전 시에 평소 복용중인 약 및 아픈 증상을 의료인과 상담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 한 뒤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울/기자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23가 다당백신 접종을 한번도 맞지 않은 어르신

지원: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1회 지원

접종기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10:00~12:00)

신청처: 관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남시는 22일 '2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맞아 신장·덕풍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서 이현재 시장, 이희근 기업인협의회장을 비롯한 기업인협의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장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이 시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석바대상점가의 대표상품으로 상점가캐릭터인 바댕이를 활용해 만들어진 '바댕이 빵' 시식 행사가 화제가 됐다.

바댕이빵은 지난해 '신장상권진흥



구역' 사업의 일환인 메뉴개발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빵으로, 쌀 반죽에 딸알과 커스터드 크림 등이 들어갔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행태와 및 소상공인 온라인

박강호/기자

고양특례시, 기업유치·첨단산업육성 속도 높인다

From Now) 행사도 동시에 개최되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노키아(핀란드), 텔스트라(호주) 등 세계적인 통신업체 CEO가 연사로 참여하고 5G·사물인터넷(IoT) 기술로 구현한 미래생활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최신 동향을 파악한다. 킨텍스·CJ라이브시티를 거점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교통수단, 자율주행제어를 위한 5G 통신·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28일에는 창업지원,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바르셀로나 액티브(Barcelona Activa)를 방문해 기업생태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기업지원 네트워크 형성, 성공적인 창업지원의 핵심요소를 논의한다. 다음달 1일 꽃과 미식의 도시로 알려진 관화도시 헤로나(Gerona) 시청에서 관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꽃 축제 운영 등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한 관광개발 유치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 세계 3위 규모 전시장이던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Messe Frankfurt)'를 방문해 MICE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경제산업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전시장 40만㎡, 야외전시장 5만 9500㎡ 규모에 11개 전시홀과 콩그레스센터를 갖춘 초대형 전시장이다.

세계 조명·음향 산업 전시회 'prolight + sound', 세계 최대규모의 도서·지식정보콘텐츠 교류행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문구 사무기기 박람회 '페이퍼 월드' 등 세계적인 전시회가 개최된다. 고양특례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전시장 운영방안과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3일에는 독일 도르트문트에 위치한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Lead Discovery Center)'를 방문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협의한다.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는 신약 개발과정에서 기초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최적화된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바이엘(Bayer),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머크(Merk) 등 세계적인 제약사 및 바이오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 주요 기술이 5G 모바일/ICT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된다”며 “글로벌 선도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산업 발전추세를 정책에 반영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4차 산업 스타트업 육성, 창업지원, 대형컨벤션 운영 및 MICE산업 육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제2대 장금선 회장 취임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는 지난 21일 The AK 컨벤션에서 최옥이 회장 이임식 및 장금선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보라 안성시장, 최혜영 국회의원, 안성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및 유관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금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여성기업인연합회를 위해 헌신하신 최옥이 전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회원간 유대강화와 연

합회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기업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제분야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발전하는 안성시의 중심에 새롭게 취임하신 장금선 회장님을 비롯한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안성시가 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반도체공장에 산업용 가스 공급하려는 업체 고충 해결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제출했으나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 준공 전 사용 가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에 난색

경기도가 사전 예방 감사 제도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용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A사는 인근 반도체공장의 단계별 확장에 맞춰 적기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A사는 평택시로부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공장 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해 건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A

사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 토목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처하면서 현재 A사의 공장은 당초 인가된 계획대로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A사는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전이라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의제 처리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는 해당 규정이 있으나 임시사용승인 할 때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준공 전 건축물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평택시는 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해 A사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했고, A사는 당초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2014년 4월 전국 최초 도입한 사전 예방적 선진 감사 기법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로, 2020년 2월부터는 신청 범위를 민원인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예

방 감사는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감사 4.0 추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한국도자재단, '사회적 가치 창출 공로'로 (사)이천도예협회 감사패 받아

한국도자재단이 21일 장애인에 참여한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도예' 행사 후원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사)이천도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도예'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이천도예협회가 진행한 '장애인 도자기 작품 특별 전시 행사'로 중증장애인의 도자 체험과 작품 작업 등을 도와 이천 해주도자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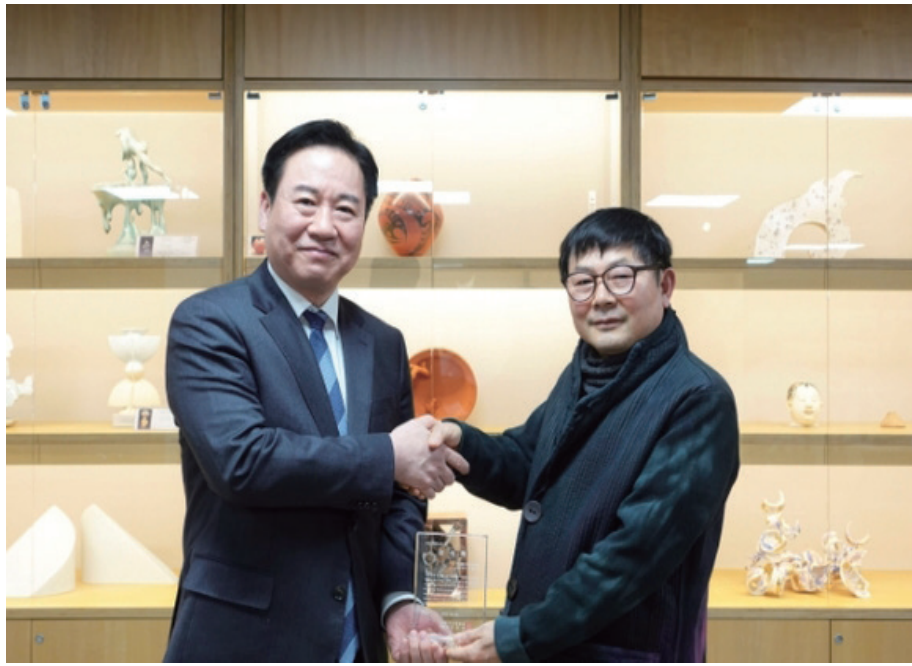
재단은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도예'의 행사비와 전통 가마 소성을 지원하며 참여 장애인의 작

품 활동을 도왔다.

김준성 (사)이천도예협회장은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경기도 예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서홍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홍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도예인 지원과 더불어 모든 도민이 차별과 소외 없이 도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GH-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사업 보상 분야에서 상호의 대외 경쟁력, 업무의 투명성과 도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상업무 관련 종합 교육 및 정보 교류 △보상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보상업무에 감정평가사의 참여 활성화 △감정평가사 업무의 안정성·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협조 등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GH는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 업무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고, 직원들의 내부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GH는 자체 보상평가 심사능력 배양 등 보상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기·정당 보상을 하여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문제의식을 갖고 종합대책반 꾸려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만전 기해야"

22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 방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 방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 방문

하게 살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침해 탐지 및 대응, 전산기반 시설 운영, 사이버 공격 대비 모의대응 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삶의 힘이 자라는 늘푸른 청송교육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Cheongsong Office of Education

“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가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해 강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 한이나 재정권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지정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근·강기윤·윤한홍·최형두(이상 국민의힘),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

시연구원협의회와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해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심을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해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

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지정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가치 및 쟁점 진단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은 2022년 현안과제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묶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가치 및 쟁점 도출”을 발간했다.

인천연구원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을 운영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항만, 산업, 교통 등 분야 9명의 연구진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살펴보고, 여러 분야별로 현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책은 총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이해를 위하여 지역현황 및 관련 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의식조사를 통해 시민 및 전문가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목표 및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분야별 쟁점과 과제를 진단하는 2부에서는 인천내항 항만기능의 재배치 방향, 인천 내항-배후지역 산업구조 개편 이슈와 과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교통체계 구축방안, 내항 일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쟁점 및 방향의 항만-물류, 산업, 교통, 관광의 핵심 분야에 대한 지역의 현안 및 과제를 살펴보고 쟁점 및 방향을 제안했다.

3부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공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내항1·8

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인천시 주도 사업구조 전환방안, 인천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 연안항 및 남항 배후지역 일일 기능변화,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중·동구 일일 활성화방안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가치 및 의제도출에 대해 종합적 정책을 제안했다.

책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개별적이고 청사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통합적이고 실천적 추진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명확한 목표와 방향에 대한 공간계획의 제시와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특성상 단순한 기능 및 시설의 배치가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공공이 수립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민간투자 등 수요자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은 이번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2023년 연구주제와 참여 연구진을 대폭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주제로는 ‘제물포르네상스 액션플랜(action plan) 연구’로 했으며, 실천적 대안의 모색과 함께 산업공간의 재해석·재창조를 테마로 13개 세부 주제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준남/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창업보육센터 간담회서 "청년창업펀드 조성" 논의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2일 관내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과 한양대학교 ERICA, 안산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POST-BI,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관내 4개 창업보육센터 팀장과 매니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현재 4개 창업보육센터에 218개의 창업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발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사업화 자금 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

년일자리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한양캠프, 예대캠프, 초지캠프 등 3개 캠프의 청년큐브 운영을 통해 예비 및 초기창업자들을 위한 50개의 입주공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멘토링 ▲제품화 ▲마케팅 ▲각종 인증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해 창업지원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박차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시민콘서트 등 55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3대 봄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일 5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데 이어, 지난 21일 기념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더욱 완성도 높은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추진사업 관련 부천시 부서장과 유관기관장 그리고 대중의 시각을 반영해 줄 외부 전문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올 한해 논의와 속의 과정을 거쳐 기념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확정된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한 바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문가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만큼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시민이 어울려 함께 누릴 수 있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100년 대계의 전환점인 올해를 기점으로 민선 8기 첫해부터 강조했던 부천시 대전환을 문화·경제·도시 등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안양시, 올해 '신중년' 사업으로 경제 활력 높인다

최대호 시장 “신중년의 끊임없는 도전 안양시가 적극 지원”

안양시가 관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중년’을 겨냥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만 50세에서 64세의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말한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 내 신중년 인구는 올해 1월말 기준 14만 1960명으로 시 전체인구(54만 7917명)의 약 26%에 해당한다.

전체인구의 15.5%인 65세 이상 인구(8만 4925명)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계층별 특화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사업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신중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통해 신중년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애설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센터를 통해 교육 및 상담, 취업 훈련, 일자리 훈련,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 활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배움터’, 실버보드게임지도사(2급)를 양성하는 ‘두뇌활동 코디네이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의 신규사업 중에는 신중년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요리교실도 마련됐다. ‘신중년을 위한 신사의 밥상’을 통해 오는 4~5월 8주 동안 제철음식 및 밑반찬, 떡볶이, 김치, 막걸리 등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락 봉사의 날 행사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 예정 신중년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이다. 신중년을 위한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도 이어간다. 올해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도우미, 복지관 차량업무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카페운영, 사회복지 업무보조,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성화고 진로상담 등 28개 분야에서 약 34명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신중년층의 경력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일반경비원 법정신입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올해도 이어가는 한편 ‘연기 교실’도 신설해 신중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중년은 안양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둥”이라며 “현업에서 은퇴한 신중년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활력있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유용/기자

광명시, 어린이와 어르신 건강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광명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과 함께 최근 시민들의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경기도 ‘맑은 숨터 개선사업’ 대상 추천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인증제 안내 등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72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및 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를 점검하고 12개소의 오염도를 검사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자가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실내 환경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22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6개 항목)을 무료 측정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등을 컨설팅해 실내 공기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기도 ‘맑은 숨터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가 미흡한 시설의 곰팡이나 노후 환기설비 등 실내 공기질 악화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맑은 숨터 개선사업’을 통해 8개 시설의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그 밖에 환경부 지정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내 도로·마감재 등의 중금속 초과 여부, 부식 및 노후화 여부 등 실내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관내 시설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실내공기질 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예천군, 자매도시 대구 수성구와 고향사랑 기부제 품앗이...유대관계 끈끈

김학동 예천군수·김대권 수성구청장 각 지자체 기부, 주민 동참 홍보 진행



예천군은 자매도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고향사랑 기부제 품앗이 기부로 양 지자체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김학동 예천군수와 김대권 구청장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에 기부를 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도 품앗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예천군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직영 인터넷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삼강나루캠핑장 할인권, 예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어 수성구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지자체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금액에 딱 맞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예천장터 쿠폰은 개인 돈을 더 추가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차별성을 뒀 기부 릴레이가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수성구와는 지난 2019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꾸준히 교류 활동을 이어가며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며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품앗이로 양 지자체가 상호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전국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녹음 가능한 '스마트 명찰'로 직원 보호 나서



영덕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창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50개를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배부했다. 해당 장치는 일반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기를 탑재한 것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이 있을 경우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은 폭력 행위의 경우 CCTV로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폭언과 협박, 욕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녹음기능의 공무원증 케이스를 통해 음성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고,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이를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덕군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 상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해 능률을 높일 예정이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녹음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라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본격 시행

의성군은 밀집된 상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등으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대비해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화재공제를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 사업으로 영입이익과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순 보험료만이 적용된 상품이다. 특히 건물구조급수 등급을 단순화(4등급→2등급)하여 다수의 화재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했다.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60%를 지원(한도 106,560원)하며,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보험증권과 보조금 신청서를 상인회를 통해 제출하면 군이 점포별 계좌 입금을 통해 지원한다. 군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5

개 시장의 상점주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사업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한 결과 현재 5시장 113개소 점포에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의성군 전통시장 전 상점주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상북도, 'AI도지사' 활용 디지털 홍보체계 선도

도지사 영상메시지, 인공지능(AI) 도지사를 활용하여 확대 제공키로

경북도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인물로 구현된 'AI도지사'를 활용해 '도지사 영상메시지'를 확대 제공하는 등 디지털 도정 홍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는 '디지털 대전환' 정부 정책을 지방이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정 전 분야에서 핵심 시책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AI도지사' 활용방안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AI도지사 영상메시지'를 시연하고 이철우 도지사는 "AI가 행정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도정 운영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고 강조하고, "AI도지사를 활용해 본인부터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플랫폼인 '챗 GTP'를 도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도지사가 부득이 행사에



▲간부회의시연(AI도지사)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접 촬영 방식으로 축사와 인사말 등 영상을 제공해 왔으나 도지사 출장 등 여러 이유

로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도정 운영 철학과 현안을 알리는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도지사 직접 촬영 영상메시지'와 'AI도지사 활용 영상메시지'를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영상 제공 범위를 도정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시책 현안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도정 운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상메시지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운영함으로써 도지사는 주요 현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북도는 'AI도지사'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지사 모델을 촬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답리닝'·'기반 인공지능 영상'을 시범적으로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 'AI도지사 영상메시지' 제작 및 운영, 홈페이지 게시도 병행 추진하며 추가적인 활용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구상 중에 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6개소 지정

22일, 현판 전달식 개최...치매 인식개선과 치매극복 환경조성

경북 영주시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세계과학관 등 6개소를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22일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공세계과학관 △평은초등학교 △영주농협 평은지점 △술치유농장 등 4개소이다.

이들 기관 및 업체는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인식개선 활동, 봉사활동 등 치매극복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공세계과학관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보듬마을(부석면 임곡2리)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어르신들의 작품을 전시할 전시 코너를 제공한다.

또, 영주농협 평은지점은 민원 대기 장소에 치매인식개선 영상을 송출하고 술치유농장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고립감 및 스트레스완화를



위한 다양한 힐링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엔 해인서한의원과 수한의원은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됐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파트너, 치매체크 앱, 치매예방 수칙과 같은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매장 안에 비치하고 치매 환자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및 임시보호 역할을 맡게 됐다.

권경희 영주시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해 치매 관리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과 지역 내 어르신들의 치매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베트남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열어

베트남 전문가 및 봉화군 관계자 참석해 사업대상지 방문



봉화 베트남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봉화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준 광운대학교 교수, 서덕수 한동대학교 교수, 도옥 루이엔 호치민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등 베트남 전문가와 봉화군수, 인구전략팀장 등 봉화군 관계자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충효당, 재실, 창평저수지 등 베트남마을 조성 사업대상지를 방문했으며 이어 백두대간수목원, 산타마을, 청량산 등 봉화군 대표 관광자원을 견학하고 베트남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사업의 한-베 문화교류 기능을 강화해 다가오는 신공항 시대에 한-베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내 베트남 다문화인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군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과 기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베 양국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사업의 성숙기에 터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고 사업의 속도를 내려 하니 군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울진군 온정면,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울진군 온정면은 지난 21일 9시부터 온정면 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온정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120명이 참여했으며, 울진군청 홍보영상 시청, 건강체조 따라하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강사 권택성)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요령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온정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어르신 120명이 마을 환경개선 및



경로당 깔고미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최윤홍 온정면장은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길 바

란다"며 "12월까지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대구시, 대구굴기 원년 '더굿나잇' 고급화 추진

대구시는 대구굴기(大邱崛起) 원년을 맞아 증가하는 여행 수요와 변화하고 있는 숙박 트렌드에 발맞춰 고급스럽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신규 발굴한다.

세대가 지나면서 숙박업소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닌 휴식, 영화 감상, 스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성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업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3년을 대구굴기 원년으로 만들고자 우수 숙박시설 '더굿나잇'의 고급화를 추진한다. '호텔' 간판을 사용하는 고급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프리미엄 숙박시설인 일반호텔 60개소, 여성안심숙박업소 30개소 운영을 목표로 삼았다.

개방형 비즈니스 호텔의 확보를 위해 △객실 수 30실 이상 △개방형 안내데스크 △간판 '호텔' 명칭 표기 △간판 조식 제공 등의 시설 기준을 갖춘 업소에 대해 일반호텔로 지정한다.

또한, 여성 및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해 △여성·가족 전용룸 운영 △여성전용 주차구역 확보 △여성안심벨 설치 △건물 외부에 대실 표시 글자 등 여성친화적인 숙박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소는 여성안심숙박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여성안심숙박업소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여성안심벨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안심숙박업소 로고 표지판을 제작·설치해 준다.

더굿나잇 신청은 숙박업소가 4월 21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에서 시설 환경,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5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시의 현장조사 및 최종 평가를 통해 7월에 선정하게 된다.

더굿나잇으로 선정이 된 업소는 숙박 전용 홈페이지에 객실 사진, 숙박요금, 편의시설 등의 숙박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PC와 모바일로 홍보하고 더굿나잇 로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한다. 또한,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시 예약을 알선하고 각종 홍보책자 발간 시 수록할 예정이다.

성용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에는 더굿나잇의 수적 증가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더욱 확충해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하는 개방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숙박 인프라 구축과 숙박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시민들과 봄마중 포항 철길숲 가꾸기...모범도시숲 위상 높인다!

포항 철길숲 모범도시숲 인증 기념하며 현판 설치에 따른 제막식 개최



포항시는 22일 철길숲에서 대한민국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며 '봄마중 철길숲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철길숲 봉사 협약단체인 포항로타리클럽, 포항영일만로타리클럽을 비롯한 지역 자생 단체 등 1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모범도시숲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고희비료 시비, 산책로 봄꽃 식재 등 철길숲 가꾸기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시민들은 2인 1조로 약 500여 본의 나무에 직접 고희비료를 주는 활동을 했는데, 고희비료는 나무의 성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른 봄철 수목 가장자리를 따라 거름을 뿌려주면 영양분이 서서히 토양에 녹아들어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철길숲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을 담은 취지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봄꽃 비올라 1,000여 본을 원형 화분에 식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산책하기 위해 자주 찾는 철길숲이 모범도시숲이란 타이틀을 얻어 매우 뿌듯하다"며, "이에 걸맞은 높은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철길숲을 아끼는 마음을 담아 이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범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

처음 시행돼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철길숲과 평택 도시바람길숲이 유일하다.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에서는 9.3km의 포항 철길숲이 도심 속 거점형 선형 도시숲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며,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체험공간으로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조성과정부터 시민 사회의 참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길숲에서 연중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 행사와 자원 봉사단체 및 시민 참여 활동들이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범도시숲 인증은 포항시가 우리나라의 도시숲 조성·관리의 기준이 됐음을 알리는 것으로, 포항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철길숲을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철길숲으로 대표되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도시숲을 지속 확충하고, 도시이미지와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철길숲에 무궁화호 폐객차를 활용한 복합문화 전시 공간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학동 도시 텃밭 주변에는 '철길숲 시민광장'을 통해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전 구간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윤타용/기자

경남도, 2024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목표액 올해보다 10% 늘어난 9조 6천억 원으로 상향 설정

경남도는 22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의 본격 추진과 경남미래 재도약을 위한 '2024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2024년 국비확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항공우주와 원전, 방산 등 미래산업, 서부경남 균형발전 등 도정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굴한 신규사업 보고와 함께 국비확보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8조 7,1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9조 원 시대를 맞이할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 확보액보다 10% 증액된 9조 6천억 원으로 설정했고, 국비 10조 원 시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실국본부, 시군, 경남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비 확보

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시작했으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실국본부장은 새로 발굴된 신규사업 142건 중에서 도정의 주요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했고, 정부예산에 반영되기 위한 보완사항과 추가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등 원전-방산을 포함하는 도 역점사업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우주항공시대를 열어갈 미래 항공모빌리티(AAM) 복합연구센터 구축,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경남도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신규사업들이 최종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4월에 2차 보고회를 거친 후 4월 말 중앙부처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해 도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향실을 운영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안수 도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개별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순신 장군 승전길 순례길 조성사업의 규모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농어촌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새롭게 발굴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부부처 사업계획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비확보는 도정추진의 원동력"이라며 "실국장들이 정부 부처를 적극 방문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현/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7박 10일간 전략집중 국가 방문해 부산 유치 지지 기반 확보 나선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7박 10일간 ▲ 레소토 ▲ 남아프리카공화국 ▲ 앙골라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최근 박형준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국가를 순방하고 있다. 미국 마이애미와 중남미 4개국(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 일본 주요 도시, 유럽 3개국(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을 순방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홍보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이 이번 순방과 같이 개최 후보 도시 시장으로서 특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 11월 유럽 3개국 순방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시장은 본인을 단장으로 정부-민간 관계자와 대통령 특사단을 꾸려 순방에 나서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사안과 함께 유치 지지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각국의 최고위급 인사와 만날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할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1개국 중 유럽(48개국) 다음으로 많은 46개국이 포함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전략집중 지역'인 만큼, 이번 박 시장의 아프리카 순방이 아프리카 국가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기반 확보에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현지시각으로 2월 24일 레소토의 수도 마세루를 방문한다. 레소토 국왕 등 최고위급 인사와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고, 레소토 국제공항 개선사업 등 레소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대통령 특사단과 동행한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항공공사 등과 협력할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레소토의 관심 분야 중 하나인 경제 투자 분야 협의를 위해 현지 코트라, 삼성전자, 부산상의 관계자 등도 특사단과 동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 시장은 현지시각으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를 방문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현지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이를 계기로 부산시와의 실질적인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남아공과 실질적인 협력 논의를 위해 현지 코트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부산상의 등도 특사단과 동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현지시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앙골라를 방문해 최고위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벌인 다음, 3월 3일 한국으로 귀국한다. 앙골라를 찾는 박 시장은 유치교섭 활동과 함께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시와 추진 중인 자매도시 체결에 대해 논의하고, 앙골라 최고위급 인사와 만나 부산시와 수산업 등 실질적 협력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번 순방을 마치고 부산 유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국가별 핵심 최고위급 인사와 접촉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부산의 국제교류 폭을 넓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맞춤형 전략을 내실 있게 실천하고, 많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소속돼 있는 아프리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진진/기자

달성군 일본 관광객 유치 위해 현지 '세일즈콜' 나서

달성군은 일본 도쿄를 방문해 현지 여행사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일즈콜(Sales call)을 진행하며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달성군 관계자들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를 찾아 현지 여행사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일즈콜 및 설명회를 실시해 달성군 관광상품 판매 및 유치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일본 최대 여행사 중 하나인 니혼료코, HIS, 요미우리 여행사 등 6개 사를 방문하여 달성군 관광지 소개와 개별 및 단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15일 도쿄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는 달성군 관광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일본인 관광객 수요 확대와 상품구성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동현/기자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3월부터 변경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이 3월부터 '확' 달라진다.

22일 사천시에 따르면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은 발행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잔액 환불이 불가능했지만, 오는 3월 1일 오전 9시부터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모바일상품권 잔액 환불의 경우 최종 잔액 기준(보유잔액+최종 구매금액)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단,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는 80% 이상 사용시 환불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의 선물하기도 상향 조정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모바일에서 타인에게 사천사랑상품권을 선물하는 최고 한도가 현

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다. 한편, 3월분 사천사랑상품권도 3월 1일부터 재구매가 가능하다.

모바일은 0시 이후(금융기관 전산점점 시간 제외)부터, 지류(종이)는 판매대행점 영업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며, 1인당 지류(종이) 20만원과 모바일 20만원을 합쳐 1인 40만원까지 재구매 할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지난 1월 10일 발행된 사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지역화폐인 사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준/기자

통영 야간관광 브랜드 BI확정

2023년 글로벌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초석 다질 예정

통영시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도시 통영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22일 개최된 '대한민국 제1호 통영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에서 야간관광 슬로건을 통영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항구의 밤을 모든 세대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Tonight, TongYeong"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그동안 각계 관광관련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BI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슬로건 BI는 붉게 지는 해를 시작으로 무채색으로 물드는 통영의 밤에 은은한 자개빛의 파스텔 컬러 빛들이 하나 둘 켜지는 야

간경관의 도시 모습을 컬러와 그래픽 아이콘, 타이포를 담았으며, 통영을 대표하는 연필등대, 바다와 함께 담은 심볼에 함께 담아 기존 도시의 가치를 유지하고 확장시켜 표현했다.

향후 통영시에는 확정된 슬로건 BI를 활용한 포토존 조성 및 굿즈 제작 등을 통해 통영 야간관광에 대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강구안 야간경관 개선, 수상무대 설치, 통영 야간개장 및 야간 도보투어, 한국관광공사 연계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전북도 “유관기관 협업으로 대회 성공 이끌터”

경기운영지원, 안전, 홍보, 도민참여 등 대회 준비를 위해 55개 과제 추진상황 최종점검 등 대회준비에 노력 기울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 조직 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유관기관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지난 2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무·유관기관 협업과제 보고회가 열렸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국제대회 유치 후 '2023 전북 아시안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비 확보, 참가자 모집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대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조직위는 전라북도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논의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도 실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중이다.

2021년부터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협업과제를 발굴·보완,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8개 분야, 55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운영지원, 안전, 경기운영, 홍보·마케팅, 관광, 문화행

사, 국제협력, 도민참여 등의 분야로, 대회준비와 손님맞이에 필요사항 등에 유관기관의 책임부여와 함께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분기별 총 4회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해,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미진사항 등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초청인사 의견·경호, 숙박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경기장 안전, 해외모집을 위한 다채널 홍보, 문화예술행사 집중 개최, 안전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전라북도와 유관기관이 조직위와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자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 수 있도록 임무를 맡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대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다중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관리,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 종합생활체육대회인 2023 전북 아시안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오는 5월에 전라북도 전역에서 개최된다.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26개 종목에서 경쟁이 아닌 친목과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조직위는 참가자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참가자 등록이 집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기간을 3월 12일까지 연장했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공식 누리집에 연계된 대회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완주군, 빈집 고쳐 취약계층 무상임대 한다

완주군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주거복지 실현한다. 22일 완주군은 빈집재생사업 임대인을 모집해 빈집을 리모델링, 저소득층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무상 임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주택은 1년 이상 된 빈집이나 6개월 이상 된 공가의 단독주택이고, 소유권, 도심접근성, 건물노후도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빈집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으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조건이며 임차인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임대인에게는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과 지역활동가 등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건축허가과로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광수기자

정읍시, 민생경제 회복 일환...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29억 1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정읍 지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각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기명 선불카드(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2022년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태양광발전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된다. 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 점포 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원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부안군, 부안상설시장 길거리 포차 운영

부안군은 ‘부안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안상설시장 길거리 포차’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안상설시장(부안읍 부풍로 47)과 부안마실공원주차장(부안읍 변영로 121)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길거리 포차는 2022년 부안설(雪)송어 축제에서 처음 영업을 개시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자아낸 바 있으며, 이후 정식 영업허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3일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길거리 포차는 매주 목·금·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재료 소진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참숯장작구이, 닭, 빈대떡, 닭포지, 타코야끼 등 다양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점차 운영시간과 메뉴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포차 거리가 조성됨에 따라 간식거리가 부족했던 부안상설시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와 대화의 자리 마련

종자업체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지난 22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한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23년 민간육종연구단지 종자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운영과 종자기업 공동활용형 가공처리시설 구축계획,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지자체간의 상생 방안 마련에 관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구본근 부원장, 김진현 종자산업진흥센터장을 비롯한 입주업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종자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제시는 이번 만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기업 협의회 측은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지자체-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지자체와 종자업체 간의 발전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행태를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첫 삽’... 백제왕도유적 한눈에

백제왕도 익산의 체류형 관광 랜드마크로 기대

익산의 분산된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센터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과 교육, 탐방 안내, 방문객 편의증진을 제공하며 세계유산도시이자 문화도시인 익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22일 금마면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부지에서 정현을 시장, 최중오 시의회 의장, 문화재청, 전라북도, 도시의원, 지역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총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3,171㎡ 위에 3개동 2층 연면적 3,650㎡ 규모로 건립된다.

백제왕궁, 미륵사지, 세석사지, 쌍릉, 익산토성, 미륵산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분산된 익산의 핵심 유적들에 대한 통합 정보와 방문객들을 위한 센터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다.

총 3개동으로 1동 환승센터 1층에는 부지 내 체험가능한 키보드 대어장소 및 정비창고,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편의시설이 조



성되어 있으며 옥상은 야외정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동 세계유산센터 1층에는 세계문화유산 도시 백제고도 익산의 유구한 역사와 백제왕도 핵심 유적들의 상징성이 전시될 홍보관이 위치하고, 2층에는 백제왕도 고도(古都)자료관 및 열람실 등이 배치된다.

3동은 고도통합지원센터로 익산 고도보존육성 세계유산보전관리 주민협의회 사무실 및 체험공간 등을 배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고도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관 색채와 내·외부 관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고려했으며, 백제대표 문화재인 미륵사지 석탑을 모티브로 한 처마 끝선이 인상적이다.

이를 위해 2021년 5월에 진행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여 차례의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백제왕도를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도 각종 행사 및 전시,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남원관광에 창의력을 더하다”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설명회 개최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의회는 지난 22일 남원예촌에서 관광분야 관계자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관광지 re-plus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plus 사업은 남원의 새로운 지역 문화자산 발굴을 통한 관광지 조성 및 콘텐츠 활성화, 확산성 있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류재현 추진단장은 남원관광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서는 남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관광객에게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재방문하고 싶은 특화된 관광명소 육성을 통한 남원관광의 정체성 확립이 re-plus 사업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광브랜드 개발, 연계관광상품 개발, 요천 스트리트 푸드, 주민참여형 일자리사업,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사업 8가지를 발표했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

며,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즐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스마트관광 조성사업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인 시대에 re-plus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했다.

이남출기자



부안상설시장 길거리 포차

11:30~재료소진시까지

부안마실공원주차장 뒤편

보타빈대떡, 꼬치상회, 코코로

구례군, 드림스타트“또래 공감 프로그램”추진 학령기 아동 대상의 심리·정서 발달의 장 마련



전남 구례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 까지 드림스타트 “또래 공감 이해 역사 탐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방학 중에도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고픈 아동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맞춤 서비스로 마련됐다.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내포보부상촌,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 탐방, 워터파크, 도예촌 체험활동 등 역사, 문화, 놀이,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평소 교과서로만 접했던 백제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현기자

해남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지원 확대

지역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지원 촘촘하고 세심하게 추진

해남군이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한 최우선 과제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예산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 약 14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관내 소상공인 대상 수요조사 결과 3년 연속 선호도 1위인 해남군 특례보증 3종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보증, 이차보전,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제도권 금융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소규모 점포경영 개선사업과 가업 승계·확장 사업은 3월 중 대상자를 모집하며, 배달 수수료 지원, 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 등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세무, 노무 온라인교육 및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상가밀집지역 활성화 지원, 도내 생산 전기이륜차 리스료 지원, 중개수수료가 거의 없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사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도 펼쳐진다. 각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후 신청, 접수 받을 예정으로 홈페이지, 해남소통넷 등을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3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이래 누적 발행 4,990억원, 판매 4,703억원, 환전 4,595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은 올해도 상품권 할인행사를 비롯해 모바일 QR결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광남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23일 ‘글로벌 도정행보’ 베트남행

농수산물 수출우호교류 확대·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전남 대도약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도정 행보에 나선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 방문이다. 김영록 지사는 베트남 방문 기간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 우호교류 지역과의 교류 확대, 전남관광 설명회 및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등을 한다. 첫 날인 23일 호치민 라벨라 호텔에서 농수산물 해외 수출 10억 달러 달성 일환으로 현지 대형 한민마켓과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한다. 24일에는 빈프억성을 방문한다. 빈프억성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지방정부 수장이 전남도를 방문해 우호 교류 협약을 한 지역이다.

응웬 만 끽영 빈프억성 당서기, 쩌우에 히엔 인민위원장을 만나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류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나트랑에서 ‘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관광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선포한 원년”이라며 “지속적인 글로벌 도정활동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남의 자연환경, 문화자산, 기술력 등을 널리 알려 전남의 케이(K)-푸드, 케이(K)-관광, 케이(K)-컬처의 진수를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호치민 한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



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 투자, 수출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포를 격려한다. 또 호치민 총영사관을 방문해 전남 관광 홍보 및 농수산

정해명기자

“글로벌 미술 축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해요”

광주시, 광주비엔날레 관람 붐업 게릴라 캠페인 실시



광주광역시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관람 붐업 캠페인’을 벌였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김요성 문화체육국장 등 직원들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행사를 관람한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캠페인을 펼쳤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4월7일부터 94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포함해 도시 전역 14개 전시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32개국 작가 79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역대 최장 기간 열리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보다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광

주디자인비엔날레 통합 홍보-마케팅 ▲시민 1명당 입장권 1매 구매하기 이벤트 ▲각종 회의·행사 개최 때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하는 등 시민과 광주비엔날레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최장 기간의 전시회로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 글로벌 미술도시의 축제로 거듭 날 것”이라며 “시

민이 함께 하는 광주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시장은 이날 게릴라 캠페인에 앞서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광주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병수기자

강종만 영광군수 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영광군, 다양한 지원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강종만 영광군수는 고물가, 고금리 등 3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공약(역점)사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과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등이 있다.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른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군비 20백만원으로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를 지출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 시기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현재 접수중이다.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은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 위기 상황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이며 사업 시기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사업장(‘23. 1. 31. 이전 개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사업장 주소 읍면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3월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인 경우 업체당 5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전남도와 시군이

300억 원 규모의 출연금 조성을 위해 5년간 공동 출연함에 있어 우리군에서도 군비 360백만 원(연 72백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용이 낮아 시장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전액 군비로 매년 1억 원씩 4년간 추가 출연하여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작년 한해에만 전 군민 1인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 등 각종 정책 수당을 영광사랑카드도 지급하여 1,080억 원의 판매액 달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영광사랑 상품권은 국비 지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과 동일하게 영광사랑카드 10% 인센티브

를 지급하고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영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차 지원 및 전기요금 보조, 제품 판매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광군의 뿌리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순기자



순천 대표 디저트 맛집을 찾아, 제8회 순천미식대첩 개최

순천시는 최근 미식 트렌드인 디저트를 주제로, 순천 대표 제빵·제과 맛집을 선정하는 제8회 순천미식대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미식대첩은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순천을 생태미식도시로 홍보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음식 경연대회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음식점(프랜차이즈 제외)은 3월 9일까지 음식설명서를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미식개발팀(061-749-4833)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부문별 10개 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닭구이를 포함한 11개 주제로 112개 음식점을 선정해 현판을 부착하는 등 미식대첩에서 선정된 음식점을 순천 최고의 맛집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최하는 제8회 순천미식대첩은 MZ세대의 필수 코스인 제빵·제과분야를 통해, 특색 있는 순천 대표 디저트 맛집을 명소화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계절별 지역농산물이 다양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미식도시이며 그동안 순천미식대첩 및 전국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입증됐다”며 “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을 찾은 방문객이 순천의 맛을 기억하며 다시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수기자

나주 다시면, 소방 협력 ‘안전한 마을 만들기’ 호응

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각 마을 경로당에 소화기 50대 지원

나주시 다시면과 나주소방서가 지난달에 이어 소방취약계층에 소화기를 지원하며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갔다. 다시면은 전남 열린 이장회의에 앞서 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관내 경로당에 지원할 소화기 50대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노인회장과 44곳 마을 이장, 119순찰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화기 사용법, 119안심콜 신청 및 치매노인지원사업을 각 마을 이장들에게 안내했다. 소화기를 전달받은 이기현 노인회분회장은 “노후 소화기 교체가 시급한 경로당이 적잖았는데 적절한 시기 소화기를 교체해준 119생활안전순찰대에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손선 면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통해 친목 도모와 여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서와 꾸준한 협업을 통해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 수소에너지거점 도시조성사업 현장시찰

지휘부 제2청사 집무(7차)로 영동·남부권 현안사업 추진 점검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2월 21일 삼척시 일원에서 '지휘부 제2청사 집무'를 실시했다.

'지휘부 제2청사 집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영동권 제2청사 설치 전까지 지휘부가 영동·남부권의 현안을 점검하고 행정력을 고루 투입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김명선 행정부지사의 제2청사(한동해본부) 집무를 시작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동·남부권 현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 해양관광과 지역개발, 연어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대학 활성화,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현안

을 논의했다.

이 날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영동·남부권의 현안인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추진했다.

삼척시, 강원테크노파크, LH공사 사업관계자와 함께 수소충전 복합스테이션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어서 삼척근덕농공단지 내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선박제조 및 수소드론 생산 관련 특구기업을 방문하여 액화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대한 현안을 청취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제2청사 집무를 통해 영동·남부권의 현안을 고루



살피고 있다"라며, "특히 수소에너지 산업은 강원도에서 생산에서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안착시켜 혁신성장의 기폭제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강릉시,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 관리위한 '건강매니저 사업' 활성화

강릉시 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건강매니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건강매니저 사업'은 보건지소·진료소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진료 중심의 의료행태에서 벗어나 의료취약지역의 소외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개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지소·진료소 구역 내 경로당 이용자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 중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다.

특히, 만성질환자 중 투약 관리가 어렵거나 혈당,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주민에게는 주 2~3회 유선이나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지소·진료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자가

건강관리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성화된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내 운동처방실, 구강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와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 협력하여 5~10명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긴 코로나19로 그간 소외됐던 분들이 자신의 건강행태를 확인하여 스스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철원군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 주목

철원군 근남면 옥단2리 양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21년 4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30건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양지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추진 주민역량강화 및 문화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가족공예, 목공예, 베이킹교실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공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가족을 이용하여 카드지갑, 차키홀더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디자인 및 가공을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목공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손으로 2구함에 직접 디자인을 임하는 우드버닝 클래스를 진행하여 목공예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베이킹교실 프로그램은 마들렌, 케이크, 쿠키, 파이 등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요리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람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손으로 재료를 섞고 구워보며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양지마을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 프로그램을 기획해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청주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최선

청주시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소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지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검사와 인증을 위한 수수료, 토양·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비 일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인증서 사본과 검사비 납부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인증 여부 등을 확인 후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영농 부담을 줄여주고 농가 소득 향상의 도움이 될 지원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화천지역 저소득층 주민 로컬 농산물 바우처 지원

화천군이 지역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로컬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천군은 올해 초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11월30일까지 이어지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는 국비 3억4,000만원 등 모두 6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에 매달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 신선한 농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규모는 매월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 가구 8만원 등이다. (가구원 증가 시 OECD 균등화 지수 적용해 지원액 비례)지원은 전자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원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다.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했으며 11월까지, 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화천지역에서는 지급 기준(2022년 12월31일 기준)에 포함되는 1,397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매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상 가공채소 등이다.

수혜가구는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 등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2일(수)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을 비롯해 최성혁 해군 제1함대 사령관과 참모장 등 지휘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에는 상호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위하여 국장급을 공동대표로 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군 제1함대는 지역 및 해군 관련 현안 해결을 동해시는 해군 제1함대 장병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최만식기자

진천군, 우리동네 한바퀴 두벅두벅 운영

진천군보건소는 군민 건강증진과 걷기의 생활화를 위해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우리동네 한바퀴 두벅두벅(Do Walk, Do Walk)'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걸음 수 측정과 건강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걷기 앱을 활용해 이벤트와 걷기 챌린지를 제공하며 친구, 동료, 이웃과 함께 일상 속 건강한 걷기 습관 형성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걷기 챌린지 9회, 인증 이벤트 5회를 운영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4.2%, 두벅두벅 재참여 의사가 99.1%로 나오는 등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운동도 하고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어 1석 2조 효과를 보는 등 매월 걷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생겨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진천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워크온'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진천군 따로 또 같이 두벅두벅'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된다.

이를 통해 매월 진행되는 걷기 행사에 참여하면 신체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얼마 전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증 이벤트를 실시하고 매월 참여자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으로 떠나는 즐거운 빵 여행 초대

베리베리 빵빵데이 3월 25일,26일 개최, 행사참여 동네빵집 빵지순례 진행

올봄에도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이 입도 눈도 즐거운 빵 여행으로 빵지순례단을 초대한다.

(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 우수한 빵을 널리 알리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개최된다.

행사 기간 참여하는 동네 빵집은 각 업소가 축제의 장이 돼 지역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빵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면 1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천안지역 딸기로 만든 수제빵 증정 등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시마다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킨 '천안 빵빵데이'만의 차별화된 '빵지순례단'은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해 관내 100팀, 관외 100팀 모두 200팀(700여명)을 모집한다.

타지역 거주자 모집 비율을 상향 조정해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에 널리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빵지순례단은 빵도 맛보고 천안 대표 명소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진다. 행사 참여 제과 업소 중 지정된 빵집 2개소를 방문하고 개인 SNS에 방문후기를 올리는 미션을 통해 천안의 숨은 빵 맛집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선정된 천안 8경 중 1개소를 방문해 후기를 SNS에 올리는 추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빵지순례단은 SNS 사용하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팀장을 포함한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4명 이하로 구성된 팀 단위로 3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천안 빵빵데이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빵지순례단에 선정된 참가자는 3월 10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박창호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장은 "지역 딸기 농가와 상생을 통해 참여 제과점이 품질 높은 건강한 빵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 농산물뿐 아니라 천안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하는 '빵의 도시 천안'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객이 맛있는 빵과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2023 베리베리 빵빵데이 축제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동해시-해군 제1함대 지역발전 상생협약 체결

동해시는 동해항을 모항으로 동해 바다 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제1함대(사령관 최성혁)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2일(수)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을 비롯해 최성혁 해군 제1함대 사령관과 참모장 등 지휘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에는 상호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위하여 국장급을 공동대표로 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군 제1함대는 지역 및 해군 관련 현안 해결을 동해시는 해군 제1함대 장병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군 제1함대와 동해시는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동해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심규언 시장은 "우리시 사회·경제적인 기여도 등 모든 면에서 해군제1함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그간 재해구호와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협력해온 해군 제1함대와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춘천시, '소양강쌀 소비촉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쌀 가격 경쟁력 획득

소양강쌀 소비 촉진비 지원으로 관내 대량소비처 공급 확대

춘천시가 지역쌀 소비 촉진 지원의 일환으로 3억원을 투입, 지역쌀 구매업체를 지원한다.

춘천시는 관내 대학, 병원 단체급식소 등 대형 소비처를 대상으로 소양강쌀을 계약공급하는 지역쌀 도정업체 소비촉진비를 20kg포 당 6,000원 ~ 10,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 춘천 지역에서는 관외 저가미가 1100톤이 소비되는 반면, 소양강쌀은 가격경쟁에서 밀리며 800톤, 약 2억 8천만원 상당 손해를 보며 혈값에 판매됐다.

이는 지형적인 원인으로 저가미 대비 소양강쌀의 생산비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그로 인해, 관내 대규모 급식업체인 대학 및 대학병원 구내식당의 입찰에서 번번이 우리지역 쌀이 낙품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양강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으로 강원대와 대학병원에 우리 지역쌀인 소양강쌀 납품을 성공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훈)은 "소양강쌀의 경우, 그동안 가격경쟁에 밀려 관내 자가소비량도 부족했던데 오히려 외지 쌀이 선점되어 재고가 쌓이고 농업인의 수매가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지만, 이 사업을 통해 쌀 판매량 증가와 춘천시 농업인 쌀 수매가 보전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영동군, 봄의 전령 복숭아 꽃 만발!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군에 복숭아 꽃이 만발하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황간면 금계리 박정기씨 농가의 시설하우스 내 복숭아나무는 지난 1월 6일부터 가운을 시작하여, 2월 초순부터 붉은색 꽃송이를 터트리기 시작했다.

박정기 씨 농가는 조기 결실 노력 및 개화기인 요즘 수정율을 높여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정용 뒤영벌 12통을 하우스 내에 방사했다.

여기에 복숭아 꽃가루를 직접 인공수분 하는 등 탐스러운 복숭아 생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노지보다 2개월 정도가 빨라, 5월경에는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저온이 지속되고 난방비가 크게 올라 난방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은 '핵과류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시범' 사업으로 에어캡 비닐을 설

치하여 작년 대비 난방비를 30% 줄여 시범사업의 효과를 특특히 보고 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유용미생물을 시비함으로써 복숭아 꽃눈이 충실해질 수 있었다.

시설하우스 복숭아는 노지에 비해 병해충의 피해가 적고 과피의 착색이 좋으며,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 좋고 맛 좋은 복숭아로 인정받고 있다.

박정기 씨 농가는 수확 복숭아 품질을 재배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8,000m2 규모에서 2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장인홍 소장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복숭아는 일반 노지재배보다 2개월 빠른 5월 중순경이면 소비자들에게 맛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품질 시설하우스 복숭아 재배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지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50만 청년 미래도약지원 나선다

도, 123개 사업 1839억원 규모 '2023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충남도는 올해 도내 50만 청년들의 미래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지난해 대비 747억 원 늘어난 총 1839억 원을 투입한다고 00일 밝혔다.

도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기존 청년정책 사업을 개선·보완하고,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반영한 신규사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5대 분야 123개 과제를 추진하며 각 분야별 투입 예산은 일자리 54개 과제 931억 원, 주거 7개 과제 589억 원, 교육 18개 과제 126억 원, 복지·문화 29개 과제 179억 원, 참여·권리 15개 과제 14억 원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확대, 민간주도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과 농업분야 청년 진출 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및 농지 임대, 어촌 정착 지원 등 농업분야의 청년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청년에 대해 자금, 컨설팅, 네트워킹, 투자 전 단계를 관

리는 '청년 창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 창업가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84㎡ 규모의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을 본격화하고, 청년들의 농촌 유입 촉진과 주거 안정을 위한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도 착수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조건을 대폭 개편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다.

교육 분야는 충남형 계약학과 설립 등 기업-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운영' 등 충남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혁신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복지 분야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및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의 고립·고독방지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는 청년층의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도는 청소년·직장인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충남에 소재한 전국 최초·유일의 케이팝(K-POP)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글로벌 케이팝 페스타 개최, 종합발전모델 구축 등 케이팝을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산업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위케이션 충남 구축'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천안시 안서동 일일 대학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청년 주도의 공연, 창작, 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지역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참여·권리 분야 사업을 통해서도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와 활동기반을 강화한다.

도 소관 위원회의 청년참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의 안내·신청·관리의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이나믹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한편, '충남 청년센터' 신설을 추진해 청년정책의 통합지원체계를 구



축한다.

도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부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과 협업해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겠다"며 "청년층의 수요를 정확히 진단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면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바이오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표로 추진

충청북도는 2월 22일 16시 충북도청에서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 TF는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이장희 교수(충북대 명예교수)를 공동단장으로 하고 6명의 민간전문위원을 중심으로 4개 실무팀(기업유치, 정주여건개선, 인력양성, 지방지원을 구성·운영하여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대정부 정책건의에 대해 논의, 구체적으로는 도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수도권기업 유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산재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전략으로 충북도 현안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국정과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에 포함



된 현정부 지방시대 핵심정책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선도(엔지니어)기업을 선

정·유치하고 기업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고정화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산하기관 고강도 쇄신 예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21일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이날 부서장 현안 보고회에서 "일부 산하기관에서 횡당무개한 보고서가 올라오거나 자기만의 고집으로 형성된 업무 지식을 매뉴얼화해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거나 왜곡된 형태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고 직접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산하기관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정부터 이해해야 한다"면서 "월간 확대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고 각 실국 소관 산하기관의 업무추진 현황을 해당 실국 업무보고 속에 담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산하기관 신규자를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 체육회의 업무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업무역량이 향상될 때까지 행정안전

체육국에서 주관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체육회는 본연의 업무에 한정에서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도 당부했다.

박 시장은 "감사를 너무 의식해선 안 된다. 감사를 염두에 두고 일하는 공직자들은 업무 미숙자들이 하는 업무행태다"라며 "올해는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첫해다. 아산시가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업무추진에 있어 도전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면업무를 추진하면서 고품질 성과를 창출해내려면 공직자들의 업무 혁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베이비붐 세대 이후 본청에 신규 공직자가 많아졌다. 실·국장 또는 실 과장을 중심으로 부서 특성에 맞는 직무습득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보은군, 민선8기 비전 선포식 개최

보은군은 지난 2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실현을 위한 비전을 군민과 공유하고 보은의 미래를 열어가길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최부림 보은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비전 보고,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직접 민선 8기 핵심 군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은군을 '도시형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추진 △농업, 관광, 스포츠, 지역상권, 귀농귀촌, 장애인 등 분야별 맞춤 전략 수립 △보청천을 테마가 있는 산책코스, 수변 야간경관조명, 가족 나들이 공원, 장일 먹거리 공간 등 특색있는 새로운 명소 조성 △가로면·하천면 힐링 숲길, 생태 썸피공원, 전망대 등 보은읍 중심지를 관통하는 바람길 숲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기반을 구축해 정말 잘 사는 보은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제3일반산단단지 조성과 신속한 제4산단단지 조성 추진 △신용호수권역, 속리산권역, 대



청호수권역 등 대규모 명품 관광단지 조성 △퍼블릭골프장,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스마트팜, 주거단지, 문화·교육시설, 그린에너지, 유통·가공시설 등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혁신단지 조성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8기 비전 영상을 통해 △도시형 농촌(생애 주기별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형 농촌)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은(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형 농촌) △군민의 우상이 되다(안전을 We한 보은 건설) △경제 날개를 펴다(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게) 등 4개 분야를 가지고 지속가능하고 보은의 미래를 반영한 발전방안에 대해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정화기자

증평군,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안내

증평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경농민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 및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 쏟고 있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은 거주요건, 소득기준을 고려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 ▲농지의 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 있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정되는점을 유의해야 하며,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사항 및 유의 사항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원호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2일 '제21회 중부울곡 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의회 의장으로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1회 중부울곡 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경기지역 종합일간지 '중부일보' 주최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염 의장을 대신해 부인인 전미란 여사가 참석했다.

전 여사는 상패와 상금을 대리 수상한 뒤 "본인이 당연히 참석해야 할 때도 불가피한 일정으로 대신 수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며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큰 상을 준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울곡의 정치철학인 위민정신 실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길을 가달라는 중부울곡대상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염종



현 의장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래 '의회사무

처장 개방형 전환', '조선의원외정지원추진단 및 공약정책추진단 구성', '여야정협의체 발족',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출범' 등 진취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것으로 평가된다.

염 의장은 이날 받은 상금 50만 원 전액을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부울곡대상은 중부일보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울곡 이이의 민본정신과 위민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에는 '국가정치', '자치단체 경영', '광역정치', '기초정치', '공공기관 경영' 등 5개 부문에서 염 의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수상했다.

조혜영/기자

개그맨 변기수,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개그맨 변기수씨가 22일 밀양시청을 방문해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

변기수씨는 2005년 KBS 공채출신 개그맨으로 현재 유튜브 채널 변기수골프TV를 운영하며, 평소 밀양시에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변기수씨는 "밀양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변기수씨의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 밀양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운영시간 07:00 ~ 23:00)으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대면접수는 전국 NH농협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김병수/기자

파주시 민원실,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거듭나

파주시는 22일 제2대 파주시 일일 명예시장 최수현씨가 대민최접점부서인 시청 민원실에서 시민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제2대 파주시 청년·여성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최수현씨는 업무브리핑을 받은 후 민원실을 체험했다.

먼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원하는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별 색상 구분과 바닥에 설치된 민원 안내 유도사인을 따라가 해당 창구에서 서류를 냈다. 이어 민원실의 장애인·임산부를 위한 전용 창구인 '아름다운 배려창구'와 민원실 바로 앞에 위치한 전용 주차 공간을 둘러봤다.

또한 민원실 내부에 설치된 임산부·영유아 동반 민원인을 위한 별도의 수유실을 겸한 휴게시설인 아기쉼터에 민원인을 안내하고 혼인·출생신고 등 다양한 기쁨의 순간을 담아갈 수 있는 '축하 포토존'에서 예비부부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파주시 민원실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 평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 운영,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진행,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과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 관리, 보안 2.5.7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실무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제도, 목요일간민원실 운영, 무료법률상담 등의 차별화된 민원서비스를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수상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원실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3년 파주시 명예



양평군, 노인복지대상 수상...양평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결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 노력



제2회 대한노인회 복지대상 수상 양평군은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 변화에 발맞춰 과거보다 커진 노인복지 분야에 앞서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양평군은 군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복지정책 분야에 있어 상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21일, 양평군은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서 제2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노인복지대상은 지역 경로당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경로당 유지보수 및 활성화 지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양평군노인복지관 신축 이전·노인지도자 보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관내 경로당에 자동혈압계를 설치해 수시로 혈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건강한 식사를 위한 친환경 쌀 제공을 위해 양평농업협동조합과 협약을 맺는 등 노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민선8기 조직개편...효과적인 노인복지 목표

양평군은 복지업무의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양평군 복지모형 조직개편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민선8기 조직개편을 시행해 효과적인 노인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 노인 업무를 총괄해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양평군은 노인 인구가 28%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로 돌봄의 복지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역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노인 복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제도 개선 및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생활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및 노인여가복지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 및 양평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상위 1% 복지체계 구축·도전' 민선8기 양평군은 모든 연령이 만족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 업무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에 맞는 특화된 업무체계에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평군은 지난해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등에서 8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충실성, 적절성,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8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양평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2023년 주요 복지 업무 계획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 보장 ▲장애인 생계안정 및 의료·재활 지원 추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역량강화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임소·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튼튼한 집' 지역사회 통합돌봄 창구 운영 ▲'안전한 집' 노인 주거 인프라 구축 ▲'행복한 집' 노인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충분한 집'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증대 및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중으로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100억원의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특조금을 확보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고령 친화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구축과 초고령사회 속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군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어르신들이 편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물/기자

전남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 기부 줄이어

전남 영암군은 김성진(Y-MART)회장과 김규룡(영진건설)회장이 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회장은 작은 가게 한 칸에서 출발하여 가맹점 100여 개의 유통업체(Y-MART)를 일군 영암군 금정면 출신의 기업가로, 그간 수많은 기부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영암군민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남다른 고향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22일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한 후 받은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영암군 금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취약계층에 재기부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준 김성진 회장은 "고향인 영암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기부와 함께 답례품도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 늘 고향을 생각하며 생활하는데 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규룡 회장은 영암군 시흥면 태간리 출신으로 21일 군에 고향사랑기부

금 500만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뜻과 함께 군민장학회에도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규룡 회장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소식을 듣고 내 고향 영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기부 후 받은 답례품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과 영암군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영암 사랑이 깊이 감사드리며, 영암을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기부금은 영암 발전에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전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전국 농·축협 방문을 통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하다. 김성현/기자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 안병목 대표



경산시에 또 한 번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500만원) 기부자가 나타났다. 이번 기부자는 (주)한진 안병목 대표로 22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기부금을 기탁했다.

남산면 조곡리 출신의 안병목 대표는 경산시 남산초등학교와 자인중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리더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대 남산명예면장을 역임하는 등 고향에 남다른 애착을 두고 있다.

안병목 대표가 경영하는 (주)한진은 건설 장비 기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원 수 160명, 연 매출액 283억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안병목 대표는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내 고향에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출향인이 경산을 위한 마음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표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며 500만원을 선포 기부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그 마음을 잘 받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고,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부자는 전국 농협창구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송광삼/기자

전주시 팔복동,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로 '우뚛'

우범기 전주시장이 산업단지가 위치한 팔복동을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이자 주민들이 살기 좋은 터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범기 시장은 22일 팔복동 전주페이퍼 사무동 대강당에서 인근 주민과 시의원, 산단 유관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의견을 듣는 등 순방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상영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우 시장은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민선 8기의 시정 비전과 2023년 시정 운영 방향,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우 시장의 이날 방문지인 팔복동은 전주시의 대표 산업체들이 밀집해있어 지난 반세기 이상 전주 경제를 이끌어온 곳이다.

여기에 현재 탄소 국가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산업·경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팔복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공원 조성 △팔복로 남양아파트 앞 도로개설 △서곡광장~추천대교 간 버스노선 추가 △전주 탄소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이날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혁의 꿈을 꾸고,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그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오늘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전주 경제를 이끌어온 중심지인 팔복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정책과 현장 연계, '르노코리아'·'HJ중공업' '경제AS 현장방문'

부산시는 오늘(21일) 시장 주재로 최근 자동차 수출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경영정상화 협약 이후 컨테이너선 및 방산 특수선 수주로 물량을 확보한 'HJ중공업'을 차례로 찾아 '경제AS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AS 현장방문'은 지역의 경제 위기 대응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가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오늘 방문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대기업 및 관련 산업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자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논의된 추진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은 먼저 오전 10시,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을 방문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그간 시가 지역 완성차업체를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대책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 선사 연계 지원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위기 극복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 및 물류업계 관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한편, 시는 최근 물류비 상승으로 불거진 지역 완성차 업체 수출위기



해소를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지역의 경제계와 국내 선사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해수부장관, 산업부차관 등을 직접 만나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차 전략산업 혁신성장 생태계구축을 위한 논의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HJ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한다. HJ중공업은 2021년 9월 시와 지역사회 등과 함

께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월 14일 HMM과 9,000TEU급 메탄을 추진 컨테이너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력인 방산 분야를 넘어 컨테이너선 수주 물량 확보로 빠르게 경영정상화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지역 조선산업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HJ중공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메탄을 추진 선박을 수주함에 따라 친환경선박 건조 기술력 확보에 대한 지역 조선기자재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HJ중공업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위해 부산시도 다양한 지원과 역할을 함께 한 만큼, 지역경제 상생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해의 선박수주 등 신규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조선업의 경영개선과 자생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의 주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은 후방산업과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지역경제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두 기업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 자동차업체의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도 촉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생산인력 양성과 친환경선박 연구개발(R&D)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부산의 주력산업이 더욱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33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현장 전문가와 함께 주요 경제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이 반영해 오고 있으며, 그간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AS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종진/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문 지식 습득이 현실 해결의 열쇠"

박경귀 아산시장이 22일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제181차 충남경제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에 나섰다.

'충남경제포럼'은 기업체 임직원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슈 특강을 진행하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소양 지식을 제공하는 행사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충남도와 아산시, 천안시, 하나는 행에서 후원하고 있다.

그리스 인문학의 대가로 평가받는 박경귀 시장은 이날 '오래된 미래, 그리스 문명의 지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해박한 지식과 현저 배낭여행에서 터득한 다양한 체험을 쏟아내며 역시 인문학의 달인이라고 칭송받았다.

박 시장은 특강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유산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토대 위에서 성장했다"라면서 현대사회에서 보

편적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 개념의 전파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유산에 숨은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현대사회의 복잡한 위기와 난제를 헤쳐 나갈 수 있다"라면서 "경제포럼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자 트렌드를 읽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는 "이번 인문학 강의를 통해 생존경쟁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눈을 돌려 인간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보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해답을 찾는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격월로 진행되는 충남경제포럼은 오는 6월과 10월에 아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대구' 출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앞장"

삼성전자가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지역으로 확산한다.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창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22일 대구시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C랩 아웃사이드 대구 캠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C랩 아웃사이드 대구 캠퍼스'는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대구로 확대하여,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한 공간이다. 'C랩 아웃사이드' 성공 노하우, 대구 스타트업 생태계로 이전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국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창업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지난 8년간 333개(대구 185개, 경북 148개)의 지역 대표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이들은 매출 8,700억원, 투자 유치 4,100억원, 신규 고용 4,10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 미 CES에 참가해 총 16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그동안의 C랩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역의 우수 업체를 직접 선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역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그 첫 행보로 'C랩 아웃사이드 대구' 프로그램을 신설, 대구 소재 스타트업들이 서울로 오지 않더라도 기존의 C랩 아웃사이드 육성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C랩 아웃사이드 광주', 'C랩 아웃사이드 경북'을 개소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설립, 인력 확보, 투자 유치 등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유리한 환경이 구축되면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안정화와 시장 정착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출범에 앞서, 'C랩 아웃사이드 대구'에 선정된 5개 스타트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과 인프라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내에 조성했고, 앞으로 매년 이곳에서 대구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목표다.

헬스케어/로봇/소재부품 등 대구 지역 혁신 스타트업 5개사 선발

한편, 삼성전자는 개소식에 앞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헬스케어, 로봇, 소재부품 분야 등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선도도시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선발했다.

▲ 의료AI 활용 뇌질환/언어장애 진단 플랫폼 개발 기업 '네오폰스' ▲ 테아/산도 건강진단 서비스 앱 개발 기업 '클레어오디언스'

▲ 미세먼지 저감 고효율 촉매 필터 개발 기업 '티아'

▲ 모토로라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 '엠에프알'

▲ 상황에 따라 투명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윈도우 개발 업체 '뷰전'

'네오폰스' 박기수 대표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삼성전자 C랩의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기대된다"면서 "음성과 언어를 활용해 질환을 예측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클레어오디언스' 웨이첸(Wei Qun) 대표는 "C랩 입과를 시작으로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동안 꿈꾸었던 글로벌 진출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C랩 아웃사이드 대구'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최대 1억원의 사업지원금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C랩 대구"에서 대구 첫 유니콘 기업 탄생 기대"

이날 개소식에는 대구시 흥준표 시장,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이인선 의원,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표 사장



들이 참석하여 'C랩 아웃사이드 대구' 개소식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흥준표 대구시장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힘쓴 덕분에 지역의 창업 인프라가 더욱 활력을 얻고 단단해지고 있다"며 "C랩 아웃사이드 대구"에서 대구 첫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 응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C랩 아웃사이드'를 저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서 출범했다"며 "대구에서도 앞으로 C랩을 통해 지역의 창업과 투자, 일자리 창출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올해 미 CES에서 삼성전자 C랩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확인했다. 'C랩 아웃사이드 대구'를 통해 글로벌 우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표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역 창업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C랩, 10년간 856개 사내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삼성전자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구현-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C랩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

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했고, 2015년부터 우수 사내벤처 자체가 스타트업으로 분사하는 '스핀오프' 제도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C랩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C랩을 통해 현재까지 총 856개(인사이드 391개, 사외465개)의 사내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특히, 526개 C랩 스타트업들이(아웃사이드 465개, 스프인오프 61개)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조 3,600억원에 달한다.

삼성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

삼성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과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 ▲삼성희망디딤돌 ▲삼성드림클래스 ▲삼성주니어SW아카데미 ▲삼성스마트스쿨과 같이 청소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C랩(인사이드/아웃사이드) ▲상생펀드.물대지원펀드 조성 ▲협력회사 인센티브 지급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나눔기오스크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조혜영/기자

'밤에 피는 꽃' 이하늬, 십오 년 차 복면과부 '조여화 役' 변신! MBC 사극 계보 잇는다...2023년 최고 기대작 탄생 예고!

배우 이하늬가 MBC 새 드라마 '밤에 피는 꽃'으로 안방극장에 전격 컴백한다.

MBC 새 드라마 '밤에 피는 꽃'(극본 이샘, 정명인 / 연출 장태유, 최정인 / 제작 배이스스토리, 필름그리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밤이 되면 담을 넘는 십오 년 차 수절과부 '여화'와 사대문 안, 모두가 탐내는 갓백남 종사관 '수호'의 담 넘고 선 넘는 '복면과부 이중생활' 드라마다.

극 중 이하늬는 두 얼굴의 십오 년 차 복면과부 '조여화' 역을 맡는다. 조여화는 낮에는 조신한 열녀로 담장 밖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살아가는 사대부 최고 가문의 며느리이자, 해가 지는 밤에는 담을 훌쩍 넘어 아무도 모르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는 인물이다.

스펙타클한 이중생활을 해오던 조여화는 우연히 박수호와 얽히고설켜 며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내일을 꿈꾸게 된다.

이하늬는 드라마 '원 더 우먼', '열

혈사제',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을 비롯해 영화 '유령', '극한직업' 등 안방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흥행 보증수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출연작마다 강력한 연기력은 물론 흥행 파위를 입증해온 이하늬에게 이번 작품도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밤에 피는 꽃'을 통해 안방극장 재접수를 예고한 이하늬는 흡입력 강한 다채로운 연기력은 물론 '이하늬'만의 매력으로 예비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낼 전망이다.

'밤에 피는 꽃'은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하이엔나', '별에선 온 그대', '뿌리 깊은 나무', '흥천기' 등을 연출한 장태유 PD의 신작이다.

흥행 보증수표 배우와 감독의 만남으로 벌써부터 기대되는 2023년 MBC 최고 기대작 '밤에 피는 꽃'은 본격 예열을 마치고 올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남승민,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전 2라운드서 '울면서 후회하네' 열창 "원곡자 주현미 극찬"

남승민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울림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21일 밤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에 남승민이 출연했다. 이날 남승민은 준결승전 2라운드 무대에 올랐으며, 컨디션 난조에도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며 호평받았다.

공흔과 함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열창했던 1라운드 듀엣전에 이어 2라운드 개인전 무대에 오른 남승민은 특별 심사위원인 주현미 원곡의 '울면서 후회하네'를 선곡하며 무대에 올랐다.

연습 과정에서 남승민은 갑작스럽게 급체를 하는 등 심한 컨디션 난조를 겪으며 대표단과 출연자들의 우려를 받았다. 걱정이 무색하게도 최고의 무대를 꾸미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남승민은 깊이 있는 감성과 보이스, 곡에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표현력으로 원곡자이자 특별 심사위원인 주현미를 미소 짓게 했다.

데 오늘 정말 완벽하게 불렀다.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노래를 불렀다. 너무 좋았다"고 남승민을 극찬했다.

당일 컨디션 난조를 극복하고 울림 있는 무대를 꾸민 남승민은 주현미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대표단 점수 276점이라는 다소 저조한 점수를 받으며 준결승 2라운드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8인의 결승전 진출자를 가리는 준결승전 최종 결과 발표에서 1.2라운드 합산 총점 1491점, 최종 순위 9위로 아쉽게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다.

한편, 남승민은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전 2라운드 무대에서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 무대를 펼치며 극찬 받았다.

정동희/기자

'조선변호사' 천호진 첫 스틸 공개! 절대권력자+실세 중의 실세 유제세 役...왕실과 백성 쥐락펴락 '긴장감 메이커'

'조선변호사'의 배우 천호진이 강렬한 포스로 안방극장을 사로잡는다. MBC 새 금토드라마 '조선변호사'(연출 김승호, 이한준 / 극본 최진영 / 제작 피플스토리컴퍼니, 원콘텐츠) 측은 22일(오늘) 천호진의 첫 스틸을 공개했다.

'조선변호사'는 부모님을 죽게 한 원수에게 재판으로 복수하는 조선시대 변호사 '외지부'의 이야기다. 진정한 복수는 의로운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며 백성을 위하는 진짜 변호사로 성장해가는 유제, 통쾌한 조선시대 법정 리벤지 활극 드라마다.

천호진은 극 중 조선 최고의 의결기관인 의정부의 수장이자 훈구파 세력인 '유제세'로 분한다. 유제세는 조정과 왕실, 나라, 사람의 목숨까지 쥐락펴락하는 절대권력자이며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다.

유제세는 특히 조선 조정의 최고위직인 영의정이자, 왕을 대신해서 국

정을 의논하는 권력의 최정점인 원상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삶을 폄박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극을 흥미롭게 끌고 갈 예정이다.

천호진은 극 중 차학연(유지선 역)과 부자(父子)로 호흡, 두 사람의 연기 시너지를 보는 것도 드라마의 재미 포인트다. 더불어 천호진이 우도환(강한수 역), 김지연(이연주 역)과 선보일 케미도 궁금해진다.

공개된 사진 속 천호진은 다채로운 표정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 가운데, 유제세 캐릭터에 완벽 녹아든 모습이 다. 스틸만으로도 여우와 연기 내공이 절로 느껴지는 천호진이 '조선변호사'를 통해 목격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천호진의 명품 열연이 돋보이는 MBC 새 금토드라마 '조선변호사'는 '꼭두의 계절' 후속으로, 오는 3월 31일(금) 금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친남매 듀오' 해리안윤소안, 오늘(22일) 웹툰 '신부가 필요해' 컬래버 음원 '우리 지금 연애해요' 발매

가수 해리안윤소안이 'K-Culture x K-Soul' 프로젝트로 설렘의 감성을 불어넣는다.

해리안윤소안이 참여한 'K-Culture x K-Soul' 감성 충전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세 번째 음원 '우리 지금 연애해요'가 22일 정오 발매된다.

'우리 지금 연애해요'는 웹툰 '신부가 필요해'(공동제작 피플엔스토리, 바이오펜스튜디오/원작 박수정/작가 루홍, 미니)와의 세 번째 컬래버레이션 곡으로,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의 달달한 감정을 따스한 음악으로 표현했다.

특히 사랑의 시작점에서 서로에게 점점 기울어지는 마음과 설렘을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풀어낸 가사가 인상적이다.

'K-Culture x K-Soul' 감성 충전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는 드라마, 영

화, 도서, 웹툰, 미술, 사진, 공연 등 문화 콘텐츠의 장르 경계를 허물고 작품이 지닌 서사와 스토리를 콘셉트로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는 감성 프로젝트다.

앞서 한동근이 참여한 첫 번째 음원 'I'll Be(아이 윌 비)'와 우주소녀 유연정이 참여한 두 번째 음원 'Secret Love(시크릿 러브)'로 차별화된 감성 충전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인 가운데, 해리안윤소안이 참여한 '우리 지금 연애해요' 또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감성을 선보이며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해리안윤소안이 가창한 'K-Culture x K-Soul' 감성 충전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의 세 번째 음원 '우리 지금 연애해요'는 22일 정오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황지원/기자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이지아, 슬픔과 분노의 눈물! 강렬한 '복수의 화신' 포스터! 이지아 표 색다른 액션

조작된 낙원' 이지아가 자신의 운명을 조작한 세력을 처절하게 응징한다.

오는 3월 11일(토)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크리에이터 김순옥, 연출 최영훈, 극본 현지민,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초록백미디어) 측은 오늘(20일), '복수의 화신 포스터'를 공개하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다.

이지아는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완벽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흥태라를 연기한다. 흥태라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인물. 처절한 복수를 시작하는 이지아 표 액션 연기가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

공개된 포스터 속 흥태라는 분노와 슬픔이 담긴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거침없이 참

혹한 비극을 만든 세력을 향한 흥태라의 결연한 복수 의지가 긴장감을 높인다.

또한 '운명을 조작한 대가, 반드시 갚아줄게'라는 문구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난 후 목숨까지 내던지며 복수의 화신이 된 흥태라의 운명을 짐작케 한다. 더불어 흥태라가 삶의 가득한 차가운 눈빛으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증을 안긴다.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조작한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펼치는 복수극이다.

'원더우먼' '굿캐스팅' 등에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최영훈 감독과 시청률 보증수표 김순옥 사단의 현지민 작가가 손을 잡았다. 여기에 '펜트하우스' '황후의 품격' '아내의 유혹' 등을 집필한 흥행메이커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한층 진화한 복수극을 완성한다. 이지아, 이상윤, 장희진, 박기웅, 봉태규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시너지 역시 기대된다.

tvN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제작진은 "양면적 인물들이 만들 반전과 서스펜스가 극적 재미를 선사한다"라면서 "박진감 넘치는 연출과 강렬한 액션 등 화려한 볼거리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오는 3월 11일(토)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황지원/기자



'3월 2일 컴백' 용준형, 새 싱글 'POST IT' 첫 콘셉트 포토 공개! 답한 분위기

가수 용준형이 답한 분위기로 'POST IT'의 매력을 예고했다.

용준형은 22일 0시 소속사 블랙메이커의 공식 SNS를 통해 새 싱글 'POST IT (포스트 잇)'의 첫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콘셉트 포토 속 용준형은 셔츠와 독특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나른한 표정과 포스를 선보이고 있다. 눈빛으로 사진 전체의 답한 분위기를 만드는 용준형의 포토제닉한 면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커밍순 티저의 터널 이미지, 스토일

러 필름 속 눈물 한 방울에 이어 콘셉트 포토에도 'POST IT'의 다크한 무드가 예고됐다. 용준형의 치명적인 매력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준형은 'POST IT' 발매 2주 뒤인 3월 18일과 19일 단독 콘서트 'LONER'S ROOM (로너스 룸)' 개최를 앞두고 있어 음악과 더불어 무대를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용준형의 새 싱글 'POST IT'은 오는 3월 2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최만식/기자



정동원, 두번째 '음학회' 전국투어 성료. 4개도시 8회공연 1만8천명 관객동원. '콘서트형 가수로 우뚝'

가수 정동원이 두 번째 '음학회' 전국투어를 성료했다.

정동원이 지난 1월 14일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2월 1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수원 공연을 마지막으로 콘서트 2nd 음학회 '音學會' 전국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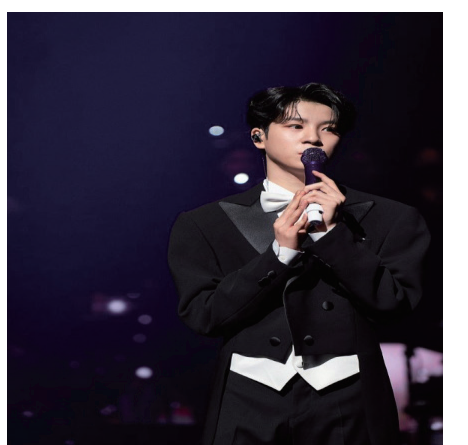
정동원 콘서트 2nd 음학회 '音學會' (2nd JEONG DONG WON'S ORCHESTRA CONCERT) 전국투어 콘서트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수원 4개 지역에서 총 18,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다시 한번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정동원은 모든 가수들의 꿈의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에서 2022년, 2023년 2년 연속 단독콘서트를 열었다.

'음학회'라는 자신과 걸맞는 콘서트 브랜드 네임을 잘 살려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정통 트롯곡, 음악적 감각이 돋보이는 색소폰 연주, 숨겨왔던 실력을 마음껏 펼친 뮤지컬과 댄스,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들을 선보이며 가수로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또한, 매년 크리스마스에 캐롤과 겨울테마 곡들을 선보이는 성탄총동원 콘서트, 가수와 관객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동화 콘서트까지, 2021년 11월부터 3가지의 브랜드 네임으로 선보인 정동원 콘서트에서는 전체 아티스트 답게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을 선보이며 호평 받았다.

정동원은 1년 3개월간 12개도시, 25회차 공연을 선보였으며, 전체 객석 점유율 98%, 누적관객 6만명을 동



원하며 눈부신 흥행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콘서트형 아티스트', '성장형 아티스트' 등 수많은 타이틀을 획득하며 진정한 아티스트 정동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간 팬들에게 받아온 많은 사랑에 보답하듯 정동원은 이번 음학회 마지막 수원 공연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싱글 '영원'을 라이브로 감성 공개하기도 했다. 신곡 '영원'은 정동원 팬클럽인 '우주총동원'을 위해 만든 팬송으로, 팬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가사, 정동원의 감미로운 음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공연장을 질은 감동으로 물들였다.

17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무대장악력과 흥행력으로 국내 콘서트계를 자신만의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정동원이 다음 공연에서는 어떤 무대와 컨셉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동원은 콘서트 '음학회' 전국투어를 성료했다.

최만식/기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굉음 퇴출 나선다!'...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2월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번잡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이륜차,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경찰과 구청 단속원이 제지한다.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소음기 불법 개조가 적발된 것이다. 그리고 곧 대기하고 있던 소음측정원이 나서며 배기음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에 초과되는지도 철저히 검사 시작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2월 16일(목)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점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을 "이륜자동차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 해"로 정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그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불편을 초

래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합동단속은 기존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 위주로 추진됐던 것과는 달리 이륜차 소음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단속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dB 이하)을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등으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튜닝)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에 이르지 않았으나 굉음을 내며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계도했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등 12건의 위반사항을 현장 적발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들도 이륜차 배기소음을 중점 단속한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서울 시내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



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찰·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한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며, △고성능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일선 경찰서에 확대 보급하는 등 단속 장비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의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포항시, 초등학교 개학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포항시는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매점, 문방구,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위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0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올바른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제공 등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조리시설·조리 중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며, 위해 우려가 있거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박예연 식품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2. 27.~5. 31. 특별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곳 등 중점관리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지속되고 겨우내 중단됐던 각종 건설공사가 재개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구는 건설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으로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산서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0곳이며, 그중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 8곳을 비산먼지 중점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세차시설,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통행도로 살수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봄철에는 황사현상이 잦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대기질이 악화된다. 올해 봄에는 공사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익산시 가축분뇨 처리, 집중 단속

익산시가 지역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완전히 부족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해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퇴·액비 살포 기준을 행정지도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분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 의무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미입력하고 처리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 관련 부서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여 보조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잘 부숙하여 뿌리던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는 좋은 비료가 되지만, 무분별한 살포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선수/기자



해남군 "논두렁 태우기 안돼요"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농촌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

해남군은 건조한 봄을 맞아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봄철에는 논·밭두렁 불법소각 및 등산객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로,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산불 조심기간 동안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돌입했다.

우선 군 산림공원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총동원 산불 예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원에게 배분된 산불 신고 단말기를 통해 산림청 산불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체계를 구축했고,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조기 발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9대,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16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집 펌프 등 장비 점검을 완료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한 산불 조심 깃발,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각행위 취약 시간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적은 강수량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에 불법소각 및 입산 시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불 발생 시 산림공원과 또는 소방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남/기자

산림청,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묘목시장 집중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

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으로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수원시 장안구, "불법유통광고물 꼼짝 마!"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조원1·2동과 율천동 일원에서 불법유통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구 건축과 공무원 등 8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현수막, 공기주입식 입간판 등 불법으로 설치된 유통광고물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 정비를 요청했다.

허가받지 않거나 규격을 벗어난 유통광고물은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광고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따라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안구는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설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즉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영진 장안구 건축과장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집중 단속

광주시는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를 해소하고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단속 및 대민 홍보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자원순환과와 관할 읍면동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쓰레기 배출 시간대에 클린하우스 및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지와 불법소각 취약지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도 중점 단속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등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폐목재 및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 파봉을 통해 고지서, 우편물, CCTV 영상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불법소각 현장 적발을 통해 총 51건, 1천1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불법소각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제141회 수원새빛포럼은 '세시봉' 유행주의 토크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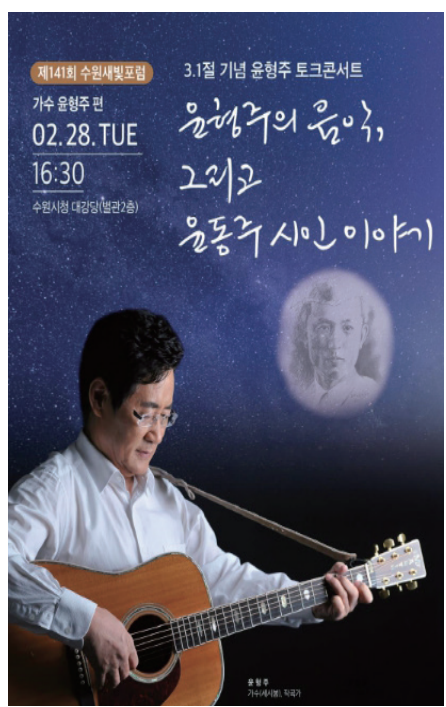
수원시가 세시봉의 유행주를 초청해 그의 노래와 유행주 시인의 이야기를 담은 토크콘서트 '제141회 수원새빛포럼'을 2월 28일 개최한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 유행주 시인의 6촌 동생인 유행주가 3.1절 정신을 기리고, 유행주 시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 유행주가 본인의 명곡을 부르는 작은 콘서트도 열린다.

포럼은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줌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과 인적자원과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4월 12일에 열리는 제142회 수원새빛포럼 행사에서는 방승인 타일러 라쉬가 '기후의 위기- 내 삶, 내 사람의 위기'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서울 중구문화재단, 중구민 초청 공연 코미디 연극 '그놈은 예뻐다' 개최

중구문화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에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코미디 연극 '그놈은 예뻐다'를 개최한다.

코미디 연극 '그놈은 예뻐다'는 2023년 첫 번째로 선보이는 중구민 초청 공연으로 중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에 상경한 대학생 두성이 비싼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교적 저렴한 여성 전용 세어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 여장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려내며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연극이다.

KBS 공채 개그맨 정태호, 배우 김현영(유튜버 달달영심이) 외 지상파 공채 개그맨 심정은, 김대성, 이상훈, 유영우가 출연하며 탄탄한 코믹 연기와 재치 있는 무대 매너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연의 재미를 더한다.

중구문화재단 조세현 사장은 "앞으로도 대중들이 쉽고 활발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서울패션위크 진화하는 K-패션 감성 알린다... 글로벌 홍보대사에 '뉴진스' 활약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패션위크'(3.15~19)...유튜브 동시중계

서울시는 2023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3 F/W (Fall/Winter, 가을/겨울) 서울패션위크'를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100% 현장 패션쇼로 개최하며, 서울패션위크 공식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어, 패션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23년 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홍보대사에는 데뷔 6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진입하고 두 개의 '밀리언셀러' 음반을 보유한 그룹 '뉴진스(NewJeans)'가 활약한다. 서울패션위크 홍보대사 '뉴진스'의 영상은 2월 25일 서울패션위크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된다.

서울시는 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에 MZ세대 패션 아이콘인 그룹 뉴진스를 선정했다. 지난 16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뉴진스의 첫 번째 공식 홍보대사 활동이다. 2023년 10월 해 동안 서울패션위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뉴진스는 이번 서울패션위크 홍보영상에서 서울패션위크 참가브랜드(얼킨, 비엘알블러, 아조바이아조)의 의상을 믹스매치해 서울패션위크 참여 디자이너의 작품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 얼킨, 비엘알블러, 아조바이아조는 K패션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이 담긴 디자인으로 MZ세대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이다.

이번 '2023 F/W 서울패션위크'는 크게 3가지 행사로 운영된다. ①30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쇼 ②27개국 130여명의 해외바이어(구매자)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수주박람회 트레이드쇼 ③패션과 혁신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구성된다.

①먼저, 올해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디자이너의 가을-겨울 시즌컬렉션을 선보이는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무대' 디자인과 '패션쇼 순서 결정방법'이다. 관객들에게 보다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일차형태의 무대를 '원형' 형태로 바꾼다. 서울패션위크 시작 23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무대 형태다. 한층 더 선명하고 영상이 극대화된 쇼 연출이 가능해진 만큼, 참여브랜드에서는 새로워진 무대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개성 강한 런웨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트홀 1관 스타디움 런웨이는 방



사형 구조로 쇼의 몰입감을 주고, 아트홀 2관의 활주로 런웨이는 대형 LED 백월(엘이디 뒷벽)을 설치한다. 오프닝을 제외한 서울컬렉션 패션쇼 전체 순서를 '디자이너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오프닝 무대는 서울컬렉션 참가 브랜드 선정 심사위원 최고점수를 받은 '얼킨(Ul:kin)'의 이성동 디자이너가 맡아 서울패션위크의 시작을 연다.

서울패션위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수 디자이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외 바이어가 '다시 보고 싶은 쇼'로 꼽는 5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즌 패션위크 때 특전이 제공된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베스트 브랜드 탑(TOP) 5"는 서울컬렉션(중진), 제너레이션넥스트(신진)에 참여한 브랜드 중 해외 바이어의 선호도 평가를 통해 다득점 순으로 5개 브랜드를 선정, 차기 시즌 참가프리패션, 쇼스케줄 선택권, 패션쇼 비용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②같은 기간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해외 유수 구매자(바이어)를 1:1로 연결하는 국내 최대 패션전문 수주상담회 '트레이드쇼'도 DDP 디자인랜드(D-숲)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즌은 전 세계 27개국, 130여명 규모로 유럽 및 미주권의 유력 백화점, 편집샵 구매자(빅바이어) 유치를 대폭 강화하여 B2B(기업 간 거래) 수주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트레이드쇼는 SC(서울컬렉션), GN(제너레이션넥스트), TS(트레이드쇼) 참가브랜드를 포함해 총 70여개의 우수 디자이너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가 참가하며, 국내·외 바이어, 유통사, 투자사 등 영향력 있는 다수의 패션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참가하여 그간 침체됐던 국내 패션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패션위크' 공식 수주박람회인 '트라노이(TRANOI)'에는 서울을 대표한 6명의 여성복 디자이너가 참가하는 서울패션위크 전문관이 조성된다. 올해는 파리뿐만 아니라 뉴욕과 도쿄까지 서울패션위크 브랜드 전용관 조성을 추진하여, 국내 디자이너의 세계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봄부터 '파리패션위크' 공식 수주박람회인 '트라노이(TRANOI)'와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리패션위크 기간 중에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을 조성해 '유럽 세일즈'를 지원하고 있다.

3월 파리 수주전시회는 3월2일(목)~3월5일(일)까지 4일간 파리 브롱나이궁(PALAIS BRONGNIART, PARIS)에서 개최된다.

③DDP 어울림 광장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함께하는 라이브 스튜디오와 시민들이 패션쇼 런웨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음성인식(AI) 포토존 등 패션과 혁신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시민체험부스를 '케이(K)-패션 스트리트'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패션·뷰티와 관련된 브랜드 개별 부스를 통해 서울패션위크 현장 찾는 시민들에게 패션에 대한 색다른 경험과 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패션위크 패션쇼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패션위크 패션쇼 시민초청 이벤트를 2월 23일 ~ 3월 6일까지 진행한다. 패션쇼를 관람하고자 하는 누구나 서울패션위크 누리집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원하는 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3월 7일부터 초청장이 발송된다.

'2023 F/W 서울패션위크'의 자세한 세부일정은 서울패션위크 공식 누리집과 카카오톡채널(서울패션위크2023),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 터널을 지나며 중·소 패션제조업체의 경쟁력과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패션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패션위크를 경쟁력 있는 우리 디자이너의 해외진출 등용문이자, K-패션의 경쟁력을 키우는 구심점으로 만들겠다. 큰 손 바이어의 구매는 높이고, 유망 디자이너는 키우고, 시민참여를 높여 패션산업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노래하는 대한민국 '강릉시 편」에심 참가자 모집

강릉시는 숨은 재주꾼들의 특출난 기와 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강릉시 편」의 예심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국 각지의 유명인이나 개성 있는 재주꾼을 직접 찾아가는 TV조선방송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심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시청 관공정채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예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예심은 3월 1일 오후 3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공개녹화에 참여할 최종 20여명의 출연자를 선발한다.

또한, 본선 녹화는 3월 4일 오후 3시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개그맨 김중국 MC가 진행하며, 강진, 박상민, 한혜진, 김용필(미스터트롯2) 등 초대가수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방청 티켓은 선착순으로 2월 27일 오전 10시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1인 2매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더불어 오는 7월 3일부터 열리는 강릉세계합창대회 사전 불협 등으로 노래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써 강릉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화성시문화재단, 2023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화성" 공모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경기도 예술인(단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우수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2023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화성"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화성"은 화성시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예술(인)단체의 우수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성시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총 지원금은 1억 8천2백만 원이며, 활동이력 있는 우수예술작품의 유통과 장려를 위한 우수예술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부문으로, 각 지원금액은 4백만 원부터 1천6백만 원까지 신청 및 접수에 따라 상이하다. 분야별 평균지원액 및 지원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공모 신청자는 홈페이지 공고 내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와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장르별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4월 21일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선정작은 연간 화성시 각지에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해당 지원사업 외에도 예술인 자립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올해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더 많은 지원사업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BTS 머문 완주군, 한류 대표 관광지로 우뚝

한국관광공사 한류 팬 위한 가이드북 제작... 완주'BTS 로드'소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완주군이 한류 대표 관광코스인 선정돼 한류 관광지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위해 케이-팝, 한류스타, 드라마, 예능, 영화, 케이-콘텐츠 등 총 6개의 테마로 한류관광 대표코스 51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공사는 이들 51선 중 14개 코스를 엄선해 가이드북 '한류위키'를 제작했다. 완주군은 14개 코스에 포함되면서 가이드북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소개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북은 국문으로 사전 제작됐으며, 영문, 일문, 중문(간체, 번체) 등 3개 언어도 내달 선보인다. 관광공사는 소개된 한류 대표 코스가 여행업계의 한류 관광 상품화에 도움을 주고, 한류 팬들이 실제 방문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류위키" 가이드북에서 완주군은 '아미되어 떠나는 BTS로드'로 소개됐다.

BTS 멤버들이 걸터앉았던 다리가

있는 고산 창포마을, 성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위봉산성, 촬영당시 수일간 통째로 빌려 머문 아원고택, BTS 영상에 소개된 소양 오성제 저수지, 멤버들이 만경강을 굽어보며 음료와 빙수 등을 즐기던 삼례 비비낙안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에 더해 한류 팬들이 즐길만한 보양식으로 완주5미 중 하나인 목은지 닭볶음탕과 닭백숙 음식점도 소개했다.

완주군은 BTS가 다녀간 직후 가이드북에 소개된 장소와 멤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탔던 구이면 경각산까지 더해 'BTS 6로드 스템프투어' 상품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5000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한류 팬들이 물리는 한류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BTS 촬영지로 관심을 모았던 웰니스 여행지를 중심으로 구이안덕마을, 삼례문화예술촌, 고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완주의 관광자원까지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덕암칼럼] 다케시마의 날이 일깨워준 반일 감정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죽도, 즉 '다케시마'라 칭하며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이 조례에 따라 정한 기념일로 매년 2월 22일이다.

우리말로 죽도라는 뜻인데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제1조의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개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는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이로 인해 한일 교류가 중단됐다.

앞서 2000년 8월에 제정한 '독도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정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기념하는 날로 삼았다.

2004년부터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2008년 들어서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회 청원 활동도 시작했다.

2010년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 한국시인협회 청소년적십자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독도의 날 기념식을 열고 민간 취지에서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양국이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일본의 계획된 의도로 드러났다. 이미 역사적으로나 고증을 거쳐도 울릉도가 부속섬인 독도는 사실상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로 구분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무리한 추진이었다.

이에 격분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국적인 독도 플래시몹을 연출하여 제2의 독립 운동이나 마찬가지로 확산시켰다. 다만 다른 것은 독립운동이 일제강점기 살벌한 탄압 속에 목숨 걸고 한 것이라면 독도

플래시몹은 불특정 다수인이 연출하는 길거리 게릴라 공연으로 신명나는 음악과 함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사 내용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이를 인식케 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연출자들이 애국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았던 학생이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불거리와 가치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만 두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냥저냥 잊을 일을 잠자던 애국심에 불지른 것이나 진배없었다. 선조들의 한을 상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독도 망언설이다. 어쨌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일은 일파만파였다.

한국 반도체 제조의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안보상 수출 우대국 지위인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내려 우리나라에 필요한 1천여개의 전략 품목에 제동을 걸었다. 폭발물, 화기 등 직접적인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900여종의 품목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그 중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 자동차 등 국내 수출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 부품이 적잖이 포함되었는데 훗날 이 같은 제재는 한국 기업들이 대일 의존없이 자립형 역수출 호황을 누리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공정한 단계만 멈추면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던 반도체 산업은 국내 전체 수출 20%를 차지하는 제1 수출 산업이었던 관계로 체계는 바짝 긴장했다. 특히 국내 화학업계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분야였고 기초화학에선 국내 화학업체들과 일본 기업들의 합작 운영이 많았다.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번도 흑자를 기록한 해가 없었던 황금 시장을 포기한 것이다.

소재 수출과 가공무역으로 이뤄지는 국제 분업 구조는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로 그것을 깬 것이며 자유

무역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나만 죽나 너도 죽는다는 것을 알리는 표본이 됐다.

한번 불붙은 한일 간의 경제전쟁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일본 경제통들은 설마 하며 관망을 했고 이는 한국인들을 더욱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소비자들은 노노재팬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숨겨진 일본 브랜드 목록과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브랜드 목록까지 찾아내 불매운동의 전문성을 높였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던 일본 담배와 맥주, 화장품은 물론 자동차, 관광업계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일본산 매장들은 줄소망을 맞아야 했다. 특히 10~20대의 반일감정이 들끓으면서 청소년들까지 합세했다.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이 재현되면서 돌이키지 못할 역사 수업이 이어진 것이다. 위기가 기회였다.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는 대일 의존도를 배제하면서 얻어진 것은 강한 자립도였다.

한번 불붙은 한일 간의 대립구도는 양국 모두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고 일본도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번 생긴 국민들 간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향이 있다면 오늘처럼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기념일을 조용히 기념하고자 한국 영토 침략에 대한 야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역사적 전범국가임을 자각하고 일본의 새로운 미래는 침략이나 강대국으로서의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배려와 양보로 경제강국의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일본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별다른 반응조차 못하는 것이 북한이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과거 선조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 괜히 건드렸다가 중국의 심기가 노여워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일까.

가만있으면 잊을 일을 매를 번다. 세월이 백년쯤 지났으면 달라질 것만도 하진만 어찌... 섬나라의 게다가 머리엔 쪽을 올린 민족의 침략근성이란 피를 못 속이는 것이다.

[박근중 칼럼] '경기둔화' 공식화 속 고물가·무역적자에 환율까지 요동, 대책은 있나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라고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발표한 '2023년 2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가 경기둔화를 인정한 건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처음이다. 작년 6월부터 사용례는 "경기둔화 우려"라는 표현에서 "우려"를 뺀 진단이다. 고물가에다 경기침체가 중첩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 문턱에 그만큼 더 바짝 다가섰다는 반감지 않은 표현으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만큼 경기 한파가 혹독하다는 의미가 분명하다.

한국 경제의 대부분 경기지표는 이미 경기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역성장(전기 대비 -0.4%)을 기록했다.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물가는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5% 넘게 천정부지로 고공행진 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뒷걸음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엔겅지수는 12.8%였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1.9%로 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 축소로 소비까지 얼어붙고 있다. 막대한 재고가 쌓인 대기업 가동률은 80% 밑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의 경우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의 감소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백화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7%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할인점 매출액도 2.8% 감소했다.

대외 변수들 역시 심상찮다. 미국은 예상외의 고용·소비 호조로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17일 외환시장에서 1293.9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2개월 만이다.

환율 상승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LNG) 등 에너지 수입 가격을 끌어올려 공공요금을 비롯한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무역수지를 더 악화시켰다. 지난해 국제 유가는 전년 대비 39% 올랐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128% 올랐다.

석탄 가격은 16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리 오픈(Re-opening | 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수출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지만, 중국 경제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 미·중 갈등 등으로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전(全) 산업생산지수(IP)는 전달보다 1.6% 줄어 2020년 4월 -1.8% 이후 32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설비투자도 7.1%나 급감하며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올해 1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지수(EBSI)'를 지난해 4분기 84.4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81.8로 전망했고, 올 2월에 대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0년 8월 81.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83.1을 기록했다.

이렇듯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총체적 복합위기)'으로 치달고 있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전략산업 지원 입법을 외면하고 되레 발목만 잡고 있다.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시간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지 정부와 관계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경기둔화의 구조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일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이란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462억 7,000만 달러(약 56조 9,000억 원)로 2022년 1월보다 16.6%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늘면서 2023년 들어 이달 10일까지 40여 일간 무역적자가 작년 연간적자 472억 3,000만 달러의 37%인 176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대중국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19.8%로 20% 선이 무너졌다.

내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8년 이후 계속 감소세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글로벌 시장 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물가 인상을 유발한 강대국들의 충돌과 고물가는 이제는 상수로 변했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하여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고착화(固着化)하면 정부도 손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는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의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국가 산업통상 전략을 총총히 짜는 게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은행은 물가·금융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고, 1.25% 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

오래 방치하면 순식간에 자본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 자칫 물가도 경기도 다 놓칠 수 있음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통해 수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이차전지(Battery)·바이오(Bio)·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 산업'은 물론 해외 건설, 관광·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시장도 유럽,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으로 '수출구 다변화(+N)'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먹이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산업전략에 일대 변화가 필요한 때다.

다행히도 기획재정부는 "확고한 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 기조하에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체질 개선 및 대내·외 리스크(Risk)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1년 방영된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 했듯이 우리 앞에 발등의 불로 불타는 '경기둔화' 파도는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타고 넘는 것일 뿐이다.

그래야만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각적·다층적 시장 안전판을 구축해야 하며, 무역적자 축소 차원에서 수출업체 원·부자재 및 물류비 지원, 무역금융 확대, 재정 건전성 복원,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로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가용 수단을 모두 집중(集注)하여 총력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고금리 충격에 취약한 서민과 자영업, 영세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NH 100년 농협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함께하는 100년 농협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 문의 :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